

「관주 성경전서 개역 한글판」 시편 1편 관주에 대한 연구

박동현*

1. 들어가는 말

1.1. 연구의 목적, 범위, 순서, 방법

아직 성서 고전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별다른 참고서를 보지 않고서 한글 성경을 중심으로 성경 본문의 뜻을 조금이라도 더 깊게 이해하려고 할 때, 쓸 수 있는 것이 관주 성경의 관주이다. 본문에 나오는 중요한 표현이나 개념과 관련되는 구절들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1998년에 「성경전서 개역 개정판」이 나온 지 오래지 않아 관주 붙은 개역개정판에 대한 요구가 커져 왔고, 이를 계기로 대한성서공회에서는 1962년부터 지금까지 널리 쓰이고 있는 「관주 성경전서 개역 한글판」¹⁾의 관주에 나타난 잘못을 확인하여 바로잡을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쌓인 성서학의 연구 결과를 관주에 반영하여, 새로운 관주를 마련할 필요성을 깊이 느끼게 되었다²⁾.

「관주 성경전서 개역 한글판」에 들어 있는 관주의 성격에 대해서는 이미 민영진이 개괄적으로 다룬 바 있다³⁾. 민영진은 먼저 한글 관주 성경의 역사를 간단히 적은 뒤에, 관주에 나오는 전후참조 표시의 효시로서 히브리어 성경의 마소라 주기에 대해 설명하고, 「관주 성경전서 개역 한글판」에 나오는 관주의 전후참조 체계를 정리하여 설명하고, 이 성경의 관주를 인증 관주와 비교 관주와 '보라' 관주

*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구약학.

1) 이 성경의 출판 연도는 전무용(“「개역한글판」 성경의 관주 검토”, 「성경원문연구」 제4호 [1999년2월], 65-100쪽, 여기서는 65쪽)이 밝힌 대로 1962년인데, 민영진(「國譯聖書研究」 [서울: 성광문화사, 1984], 45쪽)이 1956년이라 한 것은, 「관주 성경전서 개역 한글판」의 출판 연도와 「성경전서 개역 한글판」의 최종 수정 완료본의 출판 연도를 혼동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 전무용, 앞의 글, 65-66쪽.

3) 민영진, 앞의 책, 45-55쪽.

와 일반 관주의 네 가지로 나누어 각각 지니는 성격을 밝힌다. 약자 ‘인’으로 표시하는 인용 관주는 보통 신구약 성경 본문 사이의 인용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고, 약자 ‘비’로 표시하는 비교 관주는 표현이나 사상이나 개념의 평행 또는 대조 관계를 보여주며, 약자 ‘보’로 표시하는 ‘보라’ 관주는 특정 용어의 최초 출처나 특정 개념에 대한 다른 성경 저자들의 이해를 반영한다고 하며, 이런 약자가 쓰이지 않는 경우인 일반 관주는 해당 낱말에 대한 성서적 배경을 알려줌으로써 주석의 성격을 띠거나 성경어구사전이나 성경 사전의 구실을 한다고 본다.

전무용은 「관주 성경전서 개역 한글판」 관주의 뿌리를 1926년에 나온 「선한문 관주 성경전서」 관주에서 찾아내어, 이 관주가 1930년에 나온 「구역 관주 성경전서」를 거쳐 1962년의 「관주 성경전서 개역 한글판」에, 다시 1964년의 「관주 성경전서 간이 국한문 한글판」에 넘어온 것을 확인하고, 「관주 성경전서 개역 한글판」 관주에 이미 지적된 스무 군데 이상의 오류가 생긴 까닭을 다만 관주의 위치를 달리하여 받아들여지는 과정을 따라 몇 가지로 밝혀낸다. 그리하면서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에 관주를 새롭게 붙이려면, 한편으로는 이렇게 전달 과정 가운데 생긴 잘못을 확인하는 검토 작업을 성경 전체에 걸쳐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1926년에 나온 「선한문 관주 성경전서」 관주의 내용 자체를 전면적으로 검토해야 하리라고 한다⁴⁾.

이 글에서는 「선한문 관주 성경전서」의 관주를 옮겨 적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오류가 발견되지 않는 「관주 성경전서 개역 한글판」 시편 1편⁵⁾에 한정하여 그 관주의 신학적 타당성을 검토하기로 한다. 그리하여, 먼저 「관주 성경전서 개역 한글판」 시편 1편 관주에서 제시한 관련 구절이 내용상으로 본문과 어떻게 관련되어 본문 이해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어떤 점에서 문제가 되는지, 또 시편 1편 본문에 관주를 더 붙일 수 있는 경우는 없는지를 히브리어 성경⁶⁾과 몇 가지 국내외 번역 성경⁷⁾의 관주와 최근 시편 주석들⁸⁾을 참고하면서 따져보기로 한다. 그리한

4) 전무용, 앞의 글, 98-100쪽.

5) 전무용(위의 글, 82쪽)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시편 1편부터 11편까지의 경우에는 그런 오류가 없었다.

6) 1969년에 H.Bardtke가 엮어서 스투트가르트(Stuttgart)의 독일성서공회(Deutsche Bibelgesellschaft)에서 낱권으로 펴낸 *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 Librum Psalmorum*을 기준으로 삼는다.

7) 이 글에서 참고한 관주 번역본 성경은 다음과 같다. 임승필 역, 「시편. 개정판」(구약성서 새 번역 1)(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5); 「해설 관주 성경전서 독일성서공회판」(서울: 대한성서공회, 1997)(*Stuttgarter Erklärungsbibel*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92]); *The Holy Bible containing the Old and New Testaments set forth in 1611 and commonly known as the King James Version* (New York: American Bible Society, 1960)(아래에서는 KJV1로 부르기로 함); *The Holy Bible containing the Old and New Testaments. Authorized King James Version* (London/New York: Collins' Clear Type Press, 1967)(아래에서는 KJV2로 부르기로 함); *The*

뒤에, 개역개정판 시편 1편에 관주를 붙일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시안을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이 시안에서 제시한 관주의 내용을 따라 개역개정판 본문을 읽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검토하기로 한다.

1.2. 기본 용어의 정의와 글의 서술 방식

Wesley Bible. New King James Version (Nashville: Thomas Nelson Publishers, 1990)(아래에서는 NKJV로 부르기로 함); *Eyre & Spottiswoode Study Bible. The Holy Bible containing the Old and New Testaments. Revised Standard Version* (London: Eyre & Spottiswoode, 1985)(아래에서는 RSV로 부르기로 함); *NRSV Harper Study Bible* (Grand Rapids, Michigan: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91); *The Jerusalem Bible* (London: Darton, Longman & Todd, 1966)(아래에서는 JB로 부르기로 함); *The New Jerusalem Bible* (New York/London/Tronto/Sydney: Doubleday, 1985)(아래에서는 NJB로 부르기로 함); *The NIV Study Bible* (Grand Rapids, Michigan: Zondervan Bible Publishers, 1985)(아래에서는 NIV로 부르기로 함); *Bible Society's Chain Reference Bible. Good News Edition* (Cambridge: The University Press, 1985)(아래에서는 GNE로 부르기로 함); *The New Scofield Study Bible. New American Standar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Iowa Falls: World Bible Publishers, 1988)(아래에서는 NAS로 부르기로 함); *The Catholic Bible. Personal Study Edition. New American Bible* (New York/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5)(아래에서는 NAB로 부르기로 함); *Die Heilige Schrift des Alten und Neuen Testaments* (Zürich: Verlag der Zürcher Bibel, 1971)(아래에서는 ZB로 부르기로 함); *Die Bibel nach der Übersetzung Martin Luthers. Bibeltext in der revidierten Fassung von 1984*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84)(아래에서는 LB로 부르기로 함); *Die Einheitsübersetzung der Heiligen Schrift* (Stuttgart: Verlag Katholisches Bibelwerk GmbH, 1980)(아래에서는 EÜ로 부르기로 함). NIV의 경우에는 구약 성경의 관주 작성자가 June Gunden과 Kohlenberger 3세인 것이 알려져 있고(위에 인용한 *The NIV Study Bible*, xiv쪽), 임승필 역 시편의 관주는 *Traduction Oecuménique de la Bible*(Paris: Les Éditions du Cerf, 1991)과 *La Bible de Jérusalem*(Paris: Les Éditions du Cerf, 1981)을 참고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다른 경우에는 관주의 작성자가 성서공회인지, 연구용 성서 편집자인지 확실하지 않다. 이 밖에도 Robert Weber (ed.), *Bibla Sacra iuxta Vulgatam Versionem* (Stuttgart: Württembergische Bibelanstalt, 1969)(아래에서는 Vulgata라 부르기로 함)의 관주도 참고한다.

8) Robert Davidson, *The Vitality of Worship. A Commentary on the Book of Psalms* (Grand Rapids, Michigan: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 Edinburgh: The Handsel Press Ltd., 1998); J. Clinton McCann, Jr. "The Books of Psalms", *The New Interpreter's Bible. Vol. IV* (Nashville: Abingdon Press, 1996), pp.639-1280; Klaus Seybold, *Die Psalmen* (Handbuch zum Alten Testament I/15) (Tübingen: J.C.B. Mohr, 1996); James Luther Mays, *Psalms* (Interpretation. A Bible Commentary for Teaching and Preaching) (Louisville: John Knox Press, 1994); F.-L. Hossfeld/E. Zenger, *Die Psalmen. Psalm 1-50* (Die Neue Echter Bibel. Kommentar zum Alten Testament mit der Einheitsübersetzung 29)(Würzburg: Echter Verlag, 1993); Peter C. Craigie, *Psalms 1-50* (Word Biblical Commentary 19) (Waco, Texas: Word Books Publisher, 1983); Hans-Joachim Kraus, *Psalmen 1-59* (Biblicher Kommentar. Altes Testament XV/1)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78); Artur Weiser, *Die Psalmen I. Psalm 1-60* (Das Alte Testament Deutsch 14)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73); Mitchell Dahood, *Psalms I. 1-50* (The Anchor Bible 16) (Garden City, New York: Doubleday & Company, Inc., 1965). 아래에서는 저자 이름만 적으면서 인용하기로 한다.

「우리말 큰사전」에 따르면, 관주란 본디 ‘글을 끊어서 잘된 곳에 치는 동그라미’를 뜻한다⁹⁾. 그런데 「관주 성경전서 개역 한글판」에서는 본문에 나오는 표현 가운데 성경의 다른 부분과 관계되는 부분의 첫 낱말 위에 작은 글씨로 보통은 한글의 닿소리 자모 14자와 홀소리 자모 10자와 접홀소리 ㅈ를 순서대로 적은 다음에¹⁰⁾, 본문을 적은 난 위에 각 자모가 표시하는 부분과 관련되는 다른 구절들을 약자로 적어 두었다. 이 글에서는 편의상, 본문의 어떤 부분에 기호로 표시해 둔 것은 ‘관주 표시’, 그렇게 표시된 부분과 어떤 식으로든 관련된다고 보아서 본문의 난 바깥에 약자로 성경 구절을 적어 놓은 공간을 ‘관주란’, 거기 적힌 구절을 ‘관련 구절’이라 부르기로 한다. 그리고 ‘관주’라는 낱말은 이 ‘관주 표시’와 ‘관주란’와 ‘관련 구절’을 한데 묶어 말할 때 쓰기로 한다.

또 한 가지 미리 말해 둘 것은, 이 글의 서술도 논지를 간결하게 서술하는 일상의 논문 형식에서 조금 벗어나서, 다소 번거로운 느낌을 주더라도, 구약 히브리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관주 성경전서 개역 한글판」으로 성경 본문을 읽고, 매번 나오는 관주 표시를 따라 관주란에서 제시한 관련 구절들을 보면서 관주 표시된 부분의 본문의 뜻을 생각해 보는 상황을 생각해서, 관주란에 제시된 성경 구절을 대부분 한글 개역판에서 그대로 인용하고, 히브리어 본문은 문제가 되는 부분만 인용하기로 한다는 점이다.

2. 「관주 성경전서 개역 한글판」 시편 1편 관주의 검토

2.1. 1절

2.1.1. 개요

1절에는 ‘악인의’, ‘쫓지’, ‘죄인의’, 오만한’, 자리에’, ‘앓지’의 여섯 낱말의 첫 글자에 ㄱ부터 ㅈ까지의 여섯 자모가 하나씩 차례대로 윗첨자로 붙어 있고, 각 기호

9) 한글학회 위음, 「우리말 큰사전」(서울: 어문각, 1992), 396쪽.

10) 이 밖에도 시편 표제에는 * + x도 관주를 표시하는 기호로 쓰이고 있다. 앞의 주1에서 인용한 민영진의 책, 48쪽 참고. 이중모음 가운데 ‘ㅈ’만 쓴 까닭이 분명하지 않다. 어차피 한글의 26자모만으로써는 관주 표시 기호가 모자랄 경우에는 아예 ‘이’로 일단 끝내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 ‘ㄱ’부터 시작하든지, 아니면 이왕 ‘ㅈ’를 썼으면, 뒤이어 ‘ㅊ’, ‘ㅋ’, ‘ㆁ’까지는 쓸 수 있을 것이다.

가 표시하는 부분의 관련 구절들을 관주란에 적어 두었다. 그런데, 그 구절들과 시편 1장1절을 견주어 보면, 이 관주 표시에서 문제 삼고 있는 것은 ㄱ, ㄴ, ㄷ, ㄹ, ㅁ, ㅂ의 경우에 각각 ‘악인의 꾀’, ‘좃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 ‘자리’, ‘앉지 아니하고’인 것을 알 수 있다.

이제 이 여섯 가지 표현에 상응하는 부분을 관주란에서 열거한 구절들에서 찾아 그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1.2. ㄱ: ‘악인의 꾀’

‘악인의 꾀’로 번역된 히브리어 표현 <아차트 르샤임>¹¹⁾은 관주란에서 제시한 욥기 21장16절(“그들의 복록이 그들의 손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라 ‘악인의 계획’[<아차트 르샤임>은 나와 판이하니라”)에 그대로 나오는데, 다만 거기서는 ‘악인의 계획’이라고 번역되어 있다¹²⁾. 이 구절은 현재 욥기 본문의 순서에 따르면, 재난 당한 욥을 위로하러 찾아 온 세 동무 가운데 맨 끝에 등장한 나아마 사람 소발이 두 번째로 욥에게 하는 말에 대해서 욥이 대꾸하면서 번영하는 악인들의 행태와 상황에 대해 말하는 가운데 들어 있다. 이런 흐름에서 보면, 이 구절은 술한

11) 히브리어 낱말의 한글 음역 표기에 대해 아직 구약학계에서 합의를 본 바가 없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앞의 주1에서 인용한 민영진의 책, 340-359쪽에서 제안한 바를 주로 따르되, 몇 가지 경우는 시험삼아 다음과 같이 달리 적기로 한다. (1) 히브리어 장모음 가운데 <채레> 및 <채레 요드>는 <히>로, <세골> 및 <세골 요드>는 <에>로 적는다. 이는 우리 한글 모음에서 장단을 구별하여 표기할 수 없는 <아>, <이>, <오>, <우>와는 달리, <에>와 <예>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비록 음성학적으로는 맞지 않더라도, 히브리어 모음의 두 가지에 상응시켜 보고자 하는 시도이다. (2) 무성<스와> 붙은 <아인>은 <으>로 적어서, 묵음으로 처리되어 표기되지 않는, 음절 끝의 <알렙>과 구별하기로 한다. (3) 파열음 또는 폐쇄음인 <페>, <베트>, <타우>, <테트>, <달레트>, <코프>, <카프>, <기멜>이 음절 끝에 쓰일 때는 한결같이 모음 ‘으’를 붙여 적기로 한다. 이는 세 자모로 이루어진 히브리 낱말의 모습을 될 수 있는 대로 유지하기 위한 시도이다. (4) 이른바 <브가드크파트> 여섯 자모에 경강점(<다게쉬 르네>)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는 구별하여 적지 않지만, 중복점(<다게쉬 포르테>)이 붙은 자모는 원칙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한글 자모를 두 번 옮겨적기로 한다. 이는 히브리어 동사나 명사의 변화 형태를 살리기 위한 시도이다. (5) <요드>에 유성 <스와>가 붙었을 경우에는, 이를 <여>로 적어서, <요드>에 모음 <세골>이나 <채레>가 붙은 경우와 구별하기로 한다. (6) 히브리어 문장에서 여러 낱말을 한 단위로 읽을 때 쓰는 이음줄(-)은 고려하지 않는다. 한글 문장에서 문장 부호 ‘-’는 이와 전혀 다른 뜻을 지니기 때문이다. (7)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나타내는 네 자모는 <아도나이>로 표시하기로 한다.

12) 개정개정판을 포함하여 우리 한글 번역본들과 달리 독일어 성경 가운데서는 LB와 ZB가 이 두 군데에서 <아차트 르샤임>을 한결같이 der Rat der Gottlosen(‘불경건자들의 의논’)으로, 또 영어 성경 가운데서는 NIV가 the counsel of the wicked(‘사악한 자들의 모의’)로 옮겨 놓아, 실제로 그 히브리 낱말이 같다는 점을 잘 드러낸다. 여기서, 관주가 쓸모 있게 쓰려면, 글의 흐름을 깨뜨리지 않는 한, 같은 히브리어 표현은 같은 우리말로 번역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된다.

악인들 가운데 둘러싸여 어려움을 겪지만 하나님을 진지하게 섬기는 한 의인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시편 1편의 분위기에 잘 어울린다.

이처럼 ‘악인의 꾀’에 대한 관주는 히브리어로 같은 표현이 비록 한글 개역판에서 달리 번역이 되었지만 비슷한 문맥에서 쓰이고 있음을 알려줌으로써, 이 표현의 사상적 배경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그런데 <아차트 르샤임>은 또한 욥기 10장3절(“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확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아차트 르샤임>에 빛을 비취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과 22장18절(“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아차트 르샤임>은 나와 판이하니라”)에 나온다. 욥은 10장3절에서 하나님이 욥 자신은 무고히 괴로움을 겪게 하고 악인들이 계획한 바는 이루어지게 하시려는가 여쭙고 있고, 22장18절에서는 욥의 친구 데만 사람 엘리바스가 앞서 욥이 21장16절에서 한 말을 그대로 이끌어 쓰면서 자신은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자들과 다르다는 점을 말한다.

물론 시편 1편1절의 ‘악인의 꾀’에 대한 관주란에서 욥기 21장16절을 제시하고 있어서, 욥기 21장16절을 찾아 보면, 거기에 나오는 ‘악인의 계획’에 다시 욥기 22장18절을 관련 구절로 들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구절의 관련성을 추적할 수 있으나, 독자에게 조금 더 친절한 관주가 되려면, 아예 시편 1편1절의 관주란에서 욥기 22장18절까지 제시할 필요가 있다¹³⁾. 다만 욥기 21장16절의 ‘악인의 계획’에 대한 관주란에서 ‘욥22:18 비, 시1:1’라고 적음으로써, 욥기 두 본문과 시편 본문 사이에 관련성의 등급을 두는 듯한 인상을 주는데, 그렇다면, 시편 1편1절의 관주란에서도 ‘비, 욥21:16’ 또는 ‘비, 욥21:16; 22:18’이라고 썼어야 할 것이다. 이는 결국 이미 민영진이 지적한 대로¹⁴⁾, 개역 한글판의 관주에서 ‘비’라는 약자가 붙은 경우와 그런 말이 없는 일반 관주 사이에 명백한 차이가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¹⁵⁾.

13) NIV 관주란에서는 욥기 21장16절의 관주란과 시편 10편2-11절을 보라고 하는데, 욥기 21장16절의 관주란에서는 22장18절과 시편 1편1절과 26편5절(“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과 36편1[2]절(“악인의 죄악이 내 마음에 이르기를 그 목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하니”)을 관련구절로 들고 있다. 그런데, 시편 10편2-11절(이에 대해서는 다음 주를 보라)과 36편1[2]절은 악인의 행태와 생각에 대한 일반적인 진술이고, 26편5절은 아래 2.1.7에서 보듯이 시편 1편1절의 ‘앉지 아니하고’에 대한 관련 구절로 볼 수 있을 뿐, ‘쫓지 아니하며’와 직접 관련되는 구절로 보기는 힘들다.

14) 앞의 주1에서 인용한 민영진의 책, 54쪽.

15) RSV 관주란과 NAS 관주란에서는 ‘악인의 꾀’(counsel of the wicked)의 관련구절로 시편 5편9[10]절(“저희 입에 신실함이 없고 저희 심중이 심히 악하며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저희 혀로는 아침하나이다”), 10[11]절(“하나님이여 저희를 징죄하시라 자기 꾀[<모애초트>]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인하여 저희를 쫓아내소서 저희가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10편2-11절(“...²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군박하오니 저희로 자기의 배푼 꾀[<머짐모트>]에 빠지게 하소서³...⁴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며 그

또 <아차트 르샤임>이 시편 1편1절의 경우처럼 ‘악인의 꺾’로 번역된 욥기 10장3절은 욥기 21장16절과 22장18절 그 어느 곳의 관주란에도 표시되어 있지 않다¹⁶⁾.

이런 식으로 하나씩 관련 구절을 보충하다 보면, 관주 분량이 많아질 수 있다. 이를 피하려면, ‘악인의 꺾’에 대한 관련 구절은 욥기 10장3절의 관주란에서 찾아 보라는 식으로 지시하고¹⁷⁾, 욥기 10장3절의 관주란에 21장16절과 22장18절을 제시 하면 된다.

2.1.3. L: ‘좃지 아니하며’

이는 히브리어 표현 <로 할라크>의 번역인데, 관주란에서 관련 구절로 제시한 잠언 4장14절(“사특한 자의 첩경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와 15절(“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에서 각각 ‘들어가지 말며’, ‘다니지 말지어다’, ‘지나가지 말며’로 옮긴 <알 타보>, <알 트앗쇄르>, <알 타아보르>와 똑같지는 않고, 그저 비슷한 뜻을 지닌다. 또 ‘들어간다’(<보>), ‘다니다’(<아샤르>의 피엘형), ‘지나가다’(<아바르>)라는 동사와 관련되는 장소도 ‘사특한 자의 첩경’(<오라흐 르샤임>) 또는 ‘악인의 길’(<데레크 라임>)이어서¹⁸⁾, 시편 1편1절의 ‘악인의 꺾’(<아차트 르샤임>)과 일치하지는 않으나 비슷하다. 또 글의 흐름으로 볼 때 잠언 4장14-15절은 지혜 스승이 젊은 제자들을 가르치는 말 가운데 들어 있어서, 악인들 가운데서 홀로 야훼의 율법을 중심으로 성실하게 사는 복된 사람을 본받을 인물로 소개하는 분위기를 띠는 시편 1편의 지혜문학적 상황에서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그렇지만, 시편 1편1절의 <로 할라크>가 서술 관계문 안에 들어 있는 것과는 달리, 잠언 4장14-15절의 세 표현은 금지 명령문에 들어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 잠언 4장14-15절은 직접적으로 시편 1편1절의 ‘좃지 아니하

모든 사상[머짐모트]에 하나님은 없다 하나이다⁵⁾”, 36편1[2]-4[5]절(“...⁴⁾저는 그 침상에서 죄악을 피하며[야호쇼브] 스스로 불선한 길에 서고 악을 싫어하지 아니하는도다”)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여러 구절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악인(<라샤>, 10:2,3,4; 36:1[2])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에차>와 비슷한 뜻의 명사 <모에차>(5편10[11]절), <머짐마>(10편2,4절)를 ‘피’로, 또 동사 <하샤브>(36편4[5]절 - 이 글에서 성경의 장절 표시는 개역 한글판을 따르고, 이와 다른 히브리어 성경의 장절 표시는 []안에 적기로 한다)를 ‘피하다’로 번역하고 있어서, 넓게 보면, 시편 1편의 ‘악인의 꺾’와 관련된다고 볼 수 있지만, 우리로는 관주의 분량이 지나치게 늘어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일단 제외하기로 한다.

16) Dahood, 2쪽에는 언급되어 있다.

17) 그 표시 방법은 여러 가지이다. Vulgata에서는 관련 구절 다음에 ‘!’을, NIV에서는 ‘S’를, 관주 해설 성경전서 독일성서공회판에서는 ‘관’을 덧붙인다. 우리로서는 맨 마지막 경우를 따르면 좋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욥10:3관’이라고 쓰면 된다.

18) 이 두 표현에 대해서는 또한 아래 2.6.2와 2.6.4의 (2)를 보라.

며’와 관련된다고 보기는 힘들고, 그저 문맥상으로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따름이다¹⁹⁾.

이처럼 ‘좃지 아니하며’에 대한 관주는 히브리어로 비슷한 몇 가지 표현이 비슷한 문맥에서 쓰이는 구절들을 제시하면서,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악인들의 박해와 유혹 가운데서 야훼 하나님에 대한 지조를 굳게 지키는 의인의 모습을 시편 1편에서 그려보게 함으로써 본문 이해를 돕는다.

2.1.4. ㄷ: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이는 <브데레크 핫타임 로 아마드>의 번역으로서, 여기서 이에 대한 관련 구절로 제시된 잠언 1장10절(“내 아들이 ‘악한 자가 너를 끌지라도²⁰⁾ 좃지 말라’[<임여팍투카 핫타임 알 토배>]”)과 공통된 점은 복수 명사 <핫타임> 뿐인데, 그것마저도 시편 1편1절에서는 ‘죄인’으로, 잠언 1장10절에서는 ‘악인’으로 번역했다. ‘좃지 말라’로 옮긴 <알 토배>는 내용상으로 오히려 시편 1편1절에서 두 번째로 관주가 붙은 ‘좃지 아니하며’(<로 할라크>)와 잘 어울린다. 이리하여, 잠언 1장10절이 앞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혜 문학의 테두리 안에서 비슷한 흐름을 타고 있기는 하나, 시편 1편1절의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에 밀접히 관련되는 구절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오히려 잠언 1장15절(“내 아들이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알 텔레크 브데레크 잇담>] 네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을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의 관련 구절로 제시할 만하다. 잠언 1장15절의 ‘그들’은 10절에 나온 ‘악한 자’(<핫타임>, 직역하면 ‘죄인들’)이기 때문이다²¹⁾.

19) 따라서, 이 경우는, 개역 한글판의 관주 체계를 따른다면, 오히려 비교 관주로 다루는 것이 더 나올 것이다. NIV 관주란에서는 ‘좃다’(walk)의 관련구절로 시편 89편15[16]절(“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은 유복한 자라’[<아쉬래 하암>] 여호와여 저희가 주의 얼굴 빛에 ‘다니며’[<여할래군>]”)를 들고 있다. 이는 여기에 동사 <할라크>(직역하면 ‘걷다’)가 쓰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쉬래>가 들어 있는 점을 생각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이는 넓은 의미의 관련 구절로 볼 수 있을 따름이다.

20) 여기서 ‘꺾다’로 번역한 히브리어 동사 <꺾타호>는 1절에서 ‘꺾’로 옮긴 히브리어 명사의 뿌리가 되는 동사 <야아츠>와 다르다.

21) NIV 관주란에서는 ‘길에 서다’(stand in the way)의 관련 구절로서 창세기 49장6절(“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브쑌담 알 타보>]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비크할람 알 태하드>]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라도”)의 관주란을 보라고 한다. 그렇지만, 이 구절에 나란히 나오는 히브리어 명사 <쑌드>와 <카할>은 오히려 시편 1편5절 후반절에서 ‘회중’으로 번역한 <에다>와 비슷한 뜻을 지닌다. NIV 창세기49장6절 관주란에서는 시편 1편1절과 잠언 1장15절과 에베소서 5장11절(“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을 관련 구절로 제시하고 있다.

또 RSV 관주란과 NAS 관주란에서는 ‘죄인의 길’(path of sinners)시의 관련 구절로 맨먼저 드는

2.1.5. 르: ‘오만한 자’

히브리 복수 명사 <래침>의 번역인 ‘오만한 자’의 관련 구절로서 관주란에서는 잠언 1장22절(“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래침>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3장34절(“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래침>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19장29절(“심판은 ‘거만한 자’[<래침>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21장24절(“무례하고 ‘교만한 자’[<래침>를 이룸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29장8절(“‘모만한 자’[안쇄 라촌]는 성읍을 요란케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을 제시한 뒤에 마지막으로 ‘비’라는 약자 다음에, 곧 그 밖에도 비교할 만한 구절로서 이사야 28장14절(“이러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을 치리하는 너희 ‘경만한 자’[안쇄 라촌]여 여호와와 말씀들을 들을지어다”)을 들고 있다.

이리하여 히브리어로는 같은 낱말인 <래침>이 ‘오만한 자’(시1:1), ‘거만한 자들’(잠1:22), ‘거만한 자’(잠3:24; 19:29)의 세 가지로, 그 단수형 <래츠>는 또 다른 표현인 ‘교만한 자’(잠21:24)로 번역되어 있다. 다른 한편으로 잠언 29장8절의 ‘모만한 자’와 이사야 28장14절의 ‘경만한 자’는 히브리어 본문에서 ‘사람’을 뜻하는 보통 명사 <이쉬>의 복수 연계형과 동사 <리츠>(‘비웃다’, ‘조롱하다’)에서 비롯되어 그런 행위를 가리키는 명사인 <라촌>이 한데 어우러져서 실제로는 <래침>과 같은

시편 17편4절(“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좇아 ‘스스로 삼가서 강포한 자의 길에 행치 아니하였사오며’[<아니 샨마르티 오르호트 파리츠>”)은 그저 내용상으로 시편 1편1절과 관련될 뿐이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비교 관주로 표시할 수 있겠으나, 일단 제외하기로 한다.

이에서 더 나아가서, NIV 관주란에서는 시편 1편1절의 ‘죄인’(<핫타임>)의 관련 구절로 26편9절(“내 영혼을 ‘죄인’[<핫타임>]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과 37편38절(“범죄자들[<포쉬임>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르샤임>의 결국은 끊어질 것이나”)과 51편13[15]절(“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핫타임>]이 주께 돌아오리이다”)과 104편35절(“죄인[<핫타임>]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을 다시 있지 못하게 하실지라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을 들고 있다. 여기서 ‘죄인들’을 뜻하는 히브리어 복수 명사 <핫타임>이 시편에 나오는 경우를 열거하려고 했다면, 시편 37편38절은 빼고, 25편8절(“여호와를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 도로 죄인을 교훈하시리로다”)을 넣어야 했을 것이다. <핫타임>은 시편에서 6번(1:15; 25:8; 26:9; 51:13[15]; 104:35) 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런데도 시편 37편38절을 여기 적은 것은 아마 글의 흐름으로 볼 때 ‘악인’(<르샤임>)과 같은 뜻을 지니는 죄인들의 멸망이라는 주제가 시편 1편과 37편에 공통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아마드 브...>(‘...에 서다’)는 예레미야 23장22절(“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아마드 브쓰디>]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에서 볼 수 있듯이 문맥에 따라 ‘...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다’는 뜻이 되기도 한다 (Dahood, 2쪽).

뜻을 나타낸다.

문맥을 살펴 보면, 잠언 3장34절의 경우에는 <래침>(직역하면 ‘비웃는 자들’)을 야훼 하나님께서 <리츠>하신다(직역하면 ‘비웃으신다’)는 낱말 놀이를 통해서, <래침>이 어리석게 하나님을 <리츠>한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어서, 시편 1편1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1장22절에서는 의인화된 ‘지혜’의 부르는 소리를 ‘비웃는 자들’이라는 뜻에서 <래침>이 나오는데, 그 지혜의 근본이 야훼께 있다고 할 때, 이러한 ‘비웃음’은 결국 야훼를 거스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사야 28장14절에서는 ‘경만한 자’들에게 야훼의 말씀을 들을 것을 촉구하고 있어서, 이들이 평소에 야훼의 말씀을 비웃고 있다는 점을 알아차릴 수 있다. 시편 1편2절에 나오는 ‘야훼의 율법’이 시편 1편과 마찬가지로 <토라>시편이라 불리는 119편이나 19편 앞부분에서 거의 ‘야훼의 말씀’과 같은 뜻으로 쓰이므로, 이 이사야 구절은 한층 더 시편 1편1절과 가깝게 느껴진다. 이와는 달리, 잠언에서 뽑은 나머지 세 구절(19:29; 21:24; 29:8)에서는 <래츠>가 야훼 하나님 또는 야훼의 말씀을 거스른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다.

아무튼, ‘오만한 자’에 대한 관주는 같은 히브리 낱말이 비슷한 문맥에서 비슷한 뜻의 여러 가지 한글 낱말로 번역된 경우를 주로 소개하면서도 히브리 말로 비슷한 표현까지 포함하여, 그런대로 본문 이해에 도움을 준다²²⁾.

그렇지만, 비교 관주로 제시한 이사야 28장14절이 일반 관주로 앞세운 잠언 19장29절, 21장24절, 29장8절보다 시편 1편의 ‘오만한 자’의 성격 규명에 더 보탬이

22) 한편 McCann(P.684)이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래츠>라고 한다는 점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잠언 1장22절과 아울러 제시한 9장7-8절(“거만한 자[<래츠>]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래츠>]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13장1절(“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래츠>]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14장6절(“거만한 자[<래츠>]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나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15장12절(“거만한 자[<래츠>]는 견책 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 아니하느니라”)은 앞서 제시한 구절들만큼 본문 이해에 직접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NIV 관주란에서는 ‘오만한 자’(mockers)의 관련 구절로서 잠언 1장22절과 이사야 28장14절과 호세아 7장5절을 들기에 앞서 맨먼저 욱기 11장3절(“네 사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네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의 관주란을 보라고 지시하고 있는데, 그곳을 보면, ‘비웃다’(mock, <라아그>)의 관련 구절로서 욱기 12장4절과 16장10절과 17장2절과 21장3절과 30장1절과 마지막으로 시편 1편1절을 제시하고 있다. 이 구절들에 비웃거나 조롱한다는 뜻의 동사들이 나오지만, 시편 1편1절에 나오는 <래츠>는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이는 그리 적절한 관주라 하기는 힘들다. 이와는 달리 호세아 7장5절(“우리 왕의 날에 방백들이 술의 뜨거움을 인하여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래츠침>]로 더불어 악수하는도다”)에는 구약 성경에서 단 한 번 여기에 쓰이는 동사 <라차츠>의 능동 분사 복수형이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동사를 <리츠> 동사의 또 다른 꼴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된다고 할 때, 일반 관주와 비교 관주의 구별이 타당하지 않다. 위 잠언 세 구절은 일반 관주에서도 뺄 만하다.

2.1.6. □: ‘자리’

이는 <모샤브>의 번역인데, 이 낱말은 관주에서 제시한 시편 107편32절(“백성의 회에서 저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저를 찬송할지로다”)에서도 ‘자리’로 번역되어 있다. 그렇지만 문맥으로 보면, 감사시인 107편의 넷째 단락에서 바다에서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야훼 하나님의 도움으로 위기에서 벗어난 뒤 그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릴 곳으로 ‘장로들의 자리’를 말하고 있어서, 이는 시 1편1절의 ‘오만한 자의 자리’와는 대조를 이룬다. 이런 점에서 이를 비교 관주로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자리’에 대한 관주는 같은 히브리 낱말이 같은 한글 낱말로 번역이 되었으나 내용은 대조되는 경우를 소개한다.

2.1.7. ▣: ‘앉지 아니하고’

이는 <로 야샤브>의 번역인데, 이에 대한 관련 구절로서 관주란에서는 시편 26편4절(“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며[<로 야샤브티 임 므태 샤워] 간사한 자와 동행치도 아니하리이다”)와 예레미야 15장17절(“내가 기뻐하는 자의 회에 앉지 아니하며[<로 야샤브티 브쑤드 므사하킴]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을 인하여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을 제시한다. 이 두 구절에 모두 ‘앉다’는 뜻의 히브리 동사 <야샤브>가 부정어 <로>와 함께 쓰이고 있는데, 구문상으로 보면 동사 다음에 히브리 전치사 <임>(‘..와 같이’)을 쓴 전치사구(<임 므태 샤워>, 직역하면 ‘헛된 사람들과 같이’)²³⁾가 뒤따라 나오는 시편 26편4절보다는 히브리 전치사 <브>(‘...에’)를 쓴 전치사구(<브쑤드 므사하킴>, 직역하면 ‘기뻐하는 자들의 모임에’)가 나오는 예레미야 15장17절이 시편 1편1절에 더 가깝다. 26편4절은 개인 탄원사에서 시인이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는 내용 가운데 들어 있고, 예레미야 15장17절은 이른바 ‘예레미야의 고백’ 둘째

23) KJV2 관주란에서 1절의 관련 구절로서 욥기 31장5절(“언제 나의 행위가 허탄하였으며[<할랄크티 임 쇠워>, 직역하면 ‘내가 헛된 것과 같이 걸었다] 내 발이 궤홀에 빨랐던가’)을 제시한 것은, 그 전만절이 1절의 내용과 비슷하다고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두 히브리어 사본과 칠십인역과 수리아역을 따르면, 이 부분이 <할랄크티 임 므태 쇠워>(직역하면 ‘내가 헛된 사람들과 같이 걸었다’)이었으리라는 추정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이 구절은 시편 26편4절을 거쳐서 1편1절에 한층 더 가까워진다.

본문에 속하는 구절로 비슷한 흐름을 타고 있다. 이 두 구절에 비추어 보면, 시편 1편의 시인도 무고히 어려움을 겪는 의인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얹지 아니하고’에 대한 관주는 같은 히브리어 동사에 여러 가지 히브리어 전치사가 붙어서 비슷한 문맥에 쓰이고 있는 경우를 소개함으로써, 본문의 배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런데, 시 26편에는 내용상으로 시편 1편과 관련되는 구절이 하나 더 있다. 5절(“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얹지 아니하리이다’[<임 르샤임 로 애쇄브>]”)이 그것인데, 이 구절은 실제적으로 시 1편1절의 ‘오만한 자의 자리에 얹지 아니하고’(<브모샤브 래침 로 야샤브>)와 비슷한 뜻을 띤다. 특히 후반절은 <임>으로 시작하는 전치사구를 동사 <야샤브>와 부정어 <로>보다 앞세우고 있어서, 그 어순이 시1편의 상응 부분과 같다. 그렇다면, 이 구절도 관주란에서 언급했어야 한다²⁴⁾.

2.1.8. 새 관주가 필요한 경우

(1) 이 밖에 1절에서 관주를 붙일 만한 표현으로는 첫머리에 나오는 ‘복 있는’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히브리어 낱말인 <아쉬래>는, 바로 그 낱말을 통해서 시편 1편1절과 수미쌍관(首尾雙關, *inclusio*)의 관계를 이루는 시편 2편12절(“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아쉬래>]”)을 비롯하여 시편과 잠언 또 구약의 다른 책 여러 곳에 나오고, 시1편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적어도 2편12절은 관련 구절로 제시하고²⁵⁾ 나머지 구절들 가운데 적어도 2편12절과 관련되는 것들은 그곳의 관주란을 보라는 식으로 지시할 수 있다²⁶⁾. 더 나아가서, NIV 관주란처럼, <아쉬래> 형식의 표현이 현재 구약 정

24) LB 관주란과 NAV 관주란에서는 26편4-5절을, ZB 관주란에서는 4절을 시편 1편1절 전체의 관련 구절로 맨먼저 제시한다.

25) GNE 관주란에서는 ‘복 있는’(happy)의 바로 앞 뒤 관련 구절로 욱기 30장26절(내가 복을 바랐더니[GNE: I hoped for happiness]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과 시편 2편12절을 들고 있다.

26) 시편에 25번이나 나오는 <아쉬래> 구절 가운데서 34편8[9]절(“너희는 여호와와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84편12[13]절(“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과 146편5절(“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과 40편4[5]절(“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이 그런 구절로 볼 수 있다. 개역 한글판 시편 2편12절 관주에서는 이 밖에도 잠언 16장20절(“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만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과 예레미야 17장7절(“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바룩>]”)과 이사야 30장18절(“그러나

경의 순서로 볼 때에 맨먼저 나오는 신명기 33장29절(“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아쉬레카>] 여호와와 구원을 너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의 관주란을 보라고 지시하고 거기에 관련 구절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다²⁷⁾.

(2) LB나 JB 관주란 등에서 시편 119편1절(“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와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아쉬레 트미매 데레크 하홀르킴 브토라트 아도나이>])를 1편1절의 관련 구절 가운데 하나로 제시한 것은, 1편과 119편이 이른바 <토라> 시편인 점에서 설득력이 있다. 다만, 시편 1편1절 첫머리에서 <아쉬레>로 시작한 문장이 실제로는 2절 끝에서야 마무리되므로, 1-2절 전체의 관련 구절로 119편1절을 보는 것이 더 낫다²⁸⁾.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임이심이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을 관련 구절로 언급한다. 그런데, 예레미야 17장7절의 경우에는 <아쉬레> 대신에 <바룩>이 나온다.

27) NIV 관주란에서는 신명기 33장29절의 관주란을 보라고 한 뒤에, 시편 40편4[5]절(“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아쉬레 학게베르>])과 128편4절(“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겐 여보라크 가베르>])도 제시하고 있다. 그 가운데 앞 구절은 내용상으로 시편 1편1-2절에 상응한다. 그렇지만, 뒷 구절에서는 ‘복’을 표현하는 히브리 낱말의 뿌리(<ברכ>)가 1편의 경우와 다를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너무 일반적이다. <아쉬레>가 나오는 시편 구절이 이 밖에도 여럿 있고, 내용상으로도 뒤이어 2.1.8의 (2)에서 다룬 시편 119편1절(“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와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음이여”)이 앞서 말한 128편4절보다 더 1편에 가까우므로, 128편4절을 관련구절로 제시하는 것은 그리 설득력이 없다. 또 신명기 33장29절 NIV 관주란에서 제시한 관련 구절은 시편 1편1절과 32편1-2절(“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과 144편15절(“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셋 밖에 없어서,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신명기 33장29절 가운데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의 내용과 가장 가까운 경우로는 이미 언급된 시편 144편15절과 33편12절(“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을 빼신바 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을 들 수 있다. 그렇지만 ‘너는 행복자로다’(<아쉬레카>)에 들어 있는 <아쉬레> 형식에만 관주 표시를 한다면, 관련 구절로는 ‘왕상10:8; 사30:18 관; 시1:1관; 잠3:13관; 전10:17 정도만 적고, 그 후속 조치로 이사야 30장18절 관주란에서는 ‘32:20; 56:2’를, 잠언 3장13절의 관주란에서는 ‘8:32,34; 14:21; 16:20; 20:7; 28:14; 29:18’을 언급하면 될 것이다.

28) 경우에 따라서는, 야훼의 <토라> 또는 그와 비슷한 개념과 관련하여 <아쉬레> 형식이 나오는 94편12절(“여호와여 주의 징벌을 당하며 ‘주의 법’[<토라트카>]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112편1절(이에 대해서는 아래 2.2.2에서 따로 다루기로 한다), 119편2절(“여호와와 증거[<애도트>]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128편1절(“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드라킴>]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잠언 29장18절(“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토라>]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도 시편 1편1-2절의 관련

또 신약 성경에 나오는 ‘복 있도다’(<마카리오스>) 형식의 말씀 가운데서는 내용상으로 누가복음 11장28절(“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을 시편 1편1-2절의 관련 구절로 들 수 있다²⁹⁾.

(3) 다음으로, 1절에 나오는 세 동사 <할라크>(‘걷다’)와 <아마드>(‘서다’)와 <야샤브>(‘앉다’)는 신명기 6장7절(“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에서 야훼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칠 상황을 가리키는 네 동사 <야샤브>(‘앉다’)와 <할라크>(‘걷다’=한글 개역판의 ‘행하다’)와 <샤카브>(‘눕다’)와 <쿰>(‘일어나다’)과 견주어볼 만하다³⁰⁾. 따라서 1절 전체에 대한 관주란을 새로 만들고 거기에 이 구절을 관련 구절로 제시할 수 있겠다³¹⁾.

2.2. 2절

2.2.1. 개요

2절에는 ‘여호와와의’와 ‘율법을’의 두 낱말 첫 글자에 각각 ㅅ과 ㅇ이 윗첨자로 붙어 있고, 두 자모가 표시하는 부분에 관련되는 구절이 관주란에 적혀 있다. 그 구절들과 시편 1편2절을 견주어 보면, 이 두 관주 표시에서 문제 삼는 것은 각각 ‘여호와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인 것을 알 수 있다. 이제 이 두 부분에 상응하는 부분을 관주란에서 제시한 구절들에서 찾아 그 관계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2.2.2. ㅅ: ‘여호와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이에 대한 관련 구절로서 관주란에서는 시편 112편1절(“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19편35절(“나로 주의 계명

구절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관주란의 분량이 너무 커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넓은 의미에서 관련되는 구절은 일단 관주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29) Mays(44쪽)은 시편 1편 전체를 누가복음 11장28절과 관련시킨다.

30) F.-L.Hossfeld/E.Zenger, 47쪽.

31) 그런데 ZB에서는 신명기 6장7절을 시편 1편2절의 관련 구절로 제시하고 있다. 한편, NAB 관주란에서는 시편 1편1절 전체의 관련 구절로 앞 2.1.7에서 이미 언급한 26편4-5절과 앞의 주 27에서 언급한 40편4[5]절을 제시한다. JB에서는 시편 26편5절, 40편4[5]절, 112편1절, 119편1절, 잠언 1장10절을 관련 구절로 열거한다.

의 첩경으로 행케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47절(“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에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를 묵상하리이다”), 92절³²⁾(“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로마서 7장22절(“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을 제시한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시편 1편2절의 ‘여호와와 율법을 즐거워하여’(〈브토라트 아도나이 헤프초〉, 직역하면 ‘야훼의 가르침에 그의 즐거움이 있다’)와 용어 및 문장 구조상으로 가장 가까운 경우로는, 112편1절의 ‘그 계명을 즐거워하는’(〈브미츠오타브 하페츠〉, 직역하면 ‘그의 계명들을 그가 즐거워한다’)과 119편35절의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보 하파츠티〉, 직역하면 ‘그것을 내가 즐거워하리이다’)을 들 수 있다. 이 두 경우는 명사 <하페츠>(‘즐거움’)이 쓰인 시편 1편2절의 경우와는 달리, 동사 <하파츠>(‘즐거워하다’)를 쓰고 있으나, 그에 관련되는 전치사구, 곧 전치사 <브>(‘...에’)와 그에 딸린 목적어가 동사 앞에 나와서 실제로는 시편 1편2절과 같은 식으로 되어 있고, 야훼의 ‘계명’(〈미츠와〉)들 또는 그 계명들의 첩경을 밟는 것이 1편2절의 <토라>와 같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³³⁾.

119편47절의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위에쉬타아샤 브미츠오테카〉, 직역하면 ‘그리고 내가 그의 계명들을 기뻐하리이다’)와 92절의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면’(〈룰래 토라트카 샤아슈아이〉, 직역하면 ‘당신의 가르침이 내 기쁨이 아니라면’)의 경우에는 1편2절의 ‘여호와와 율법을 즐거워하며’와 전혀 다른 뿌리의 동사(〈스○○〉)나 그 명사형(〈샤아슈임〉)이 쓰이고 있다. 로마서 7장 22절의 경우에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쉬네도마이 토 노모 투 테우〉)를 히브리어 문장으로 바꾸어 보면 <하파츠티 브토라트 엘로힘〉 정도가 될 수 있어서³⁴⁾, 어순을 제외하면 시편 112편1절과 119편35절의 경우와 비슷하다.

이처럼 ‘여호와와 율법을 즐거워하여’에 대한 관주는 그 히브리어 표현이나 구조가 비슷한 구절들을 소개하면서, 본문이 어떠한 전통에 속해 있는지를 밝혀준다.

이 밖에도 예레미야 6장10절(“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

32) 1964년에 나온 「관주 성경전서 간이 국한문 한글판」에서는 이를 93절로 잘못 적었다. 전 무용(앞의 주1에서 인용한 글, 65쪽)은 이 성경에 나오는 관주의 내용이 1962년에 나온 「관주 성경전서 한글 개역판」의 관주와 같고, 관주 기호 붙이는 자리만 달라졌다고 하면서, 그 보기를 창세기 1-5장에서 찾아 제시한다(같은 글, 84-97쪽). 그렇지만, 이 경우처럼 관주를 잘못 옮겨 적은 경우도 더러 있을 것으로 보인다.

33) Davidson(11쪽)이 이 부분을 해설하면서 다른 구절들과 함께 인용하는 시편 40편8[9]절(“나의 하나님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하파츠티〉] ‘주의 법’[〈토라트카〉]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에도 동사 <하파츠>와 명사 <토라>가 같이 나오지만, 전후반절로 나누어져 쓰이고 있다.

34) 현대 히브리어 신약성경(*Hebrew New Testament*[Jerusalem: Yanetz Ltd., 1979])에서는 이 부분을 <아니 사메아흐 브토라트 엘로힘〉으로 옮기고 있다.

또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와 말씀’[<드바르 아도나이>]을 그들이 자기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아니하니’[<로 야호프추 보>]”)을 관련 구절로 볼 수 있다. 동사 <하파츠>와 전치사 <브>와 그 목적어로 이루어지는, ‘...을 즐거워하다’를 뜻하는 표현이 양쪽에 다 나오고, ‘여호와와 율법’과 ‘여호와와 말씀’(<드바르 아도나이>)은 문맥에 따라 서로 바꾸어 쓸 수 있기 때문이다³⁵⁾. 이 구절은 야훼의 말씀을 중시하는 예언자 전통과 <토라>를 중시하는 전통이 서로 통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

2.2.3. ○: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에 대한 관련 구절로서 관주란에서는 시편 119편1절³⁶⁾(“행위 완전하여 여호와 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음이여”)과 97절(“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과 여호수아 1장8절(“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을 제시한다.

그 가운데서 시편 1편2절의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브토라토 예호게 요맘 왈라열라>, 직역하면 ‘그의 가르침을 내가 낮밤으로 읊조리도다’)에 가장 가까운 것은 여호수아 1장8절의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워하기타 보 요맘 왈라열라>, 직역하면 “그리고 너는 그것[=이 <토라>]을 낮밤으로 묵상하라”)이다. 8절 뒷부분에 나오는 ‘형통하다’(<찰라호>의 히필형)는 또한 시편 1편3절에서도 쓰인다³⁷⁾. 시편 119편97절에서 ‘묵상하다’로 옮긴 히브리어 동사는 ‘감사 찬양드리면서 명상하는 것’³⁸⁾을 뜻하는 <시아호>로서 시편 77편12[13]절(“또 주의 모든 일을

35) RSV에서는 시편 1편2절과 관련되는 구절로서 119편14절(“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브테레크 에도테카 사스티>]”)과 16절(“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브후코테카 에수타아샤>]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도 제시하는데, 이 두 경우에 쓰인 히브리어 동사와 목적어는 둘 다 시편 1편2절의 경우와 같지 않고 비슷한 뜻을 지닐 따름이다. 또 Mays(43쪽)가 시편 1편에서 묘사하는 악인들은 결국 야훼의 <토라>와 올바른 관계에 서 있지 못하다고 하면서 인용하는 욥기 21장14절(“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되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나이다’[<다아트 드라케카 로 하파츠누>, 직역하면 ‘당신의 길들에 대해 알기를 우리는 즐겨하지 않노라’]”)은 시편 1편2절의 ‘여호와와 율법을 즐거워하며’와 비교할 만하다. 왜냐하면, 시편 119편 같은 데서 ‘여호와와 율법’(<토라트 아도나이>, 1절 등)과 ‘여호와와 길’(<데레크 아도나이>, 3절 등 참고)이 실제로는 같은 뜻으로 쓰이기 때문이다.

36) 이에 대해서는 위 2.1.8의 (2)를 보라.

37) 이에 대해서는 아래 2.3.5를 보라.

38) Ludwig Köhler/Walter Baumgartner/Johann Jakob Stamm (ed.), *Hebräisches und Aramäisches Lexikon zum Alten Testament*(아래에서는 HAL로 줄여쓰기로 한다). Lieferung IV (Leiden: E.J.Brill, 1990), 1231쪽: ‘dankend-lobend meditieren’.

묵상하며[<워하기티 브콜 포올레카>]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우브알릴 로테카 아시하>]’에서는, 1편에 나오는 동사 <하가>와 나란히 쓰이면서 실제로는 비슷한 뜻을 나타낸다³⁹). 119편1절은 ‘여호와와 법에’(<브토라트 아도나이>)라는 표현 때문에 여기 언급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구절은 오히려 1편1-2절 전체의 관련 구절로 보는 것이 좋다는 점은 이미 앞에서 말한 바 있다⁴⁰).

이처럼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에 대한 관주는 같은 히브리 낱말이 같은 한글 낱말로 번역된 경우와 아울러 비슷한 히브리어 표현이 같은 한글 낱말로 번역된 경우도 알려준다⁴¹).

2.2.4. 새 관주가 필요한 경우

그 밖에도 2절에서 관주를 붙일 만한 경우로는 ‘여호와와 율법’과 ‘주야로’와 ‘묵상하는’의 세 군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1) ‘여호와와 율법’에 대한 관련 구절로는 이미 앞서 1-2절 전체의 관련 구절로 언급된 119편1절⁴²) 말고 19편7[8]절(“여호와와 율법[<토라트 아도나이>]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와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과 출애굽기 13장9절(“이것으로 네 손의 기호와 네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와 율법’[<토라트 아도나이>]으로 네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능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정도를 들 수 있다⁴³).

(2) ‘주야로’로 옮긴 <요맘 왈라열라>(또는 <요맘 왈라일라>⁴⁴)는 ‘낮 동안’을 뜻

39) 개역개정판에서는 <시아호>도 대부분의 경우 <하가>처럼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로 옮겼다. 아래 4.2.3의 (2) 와 (3)을 보라. 또 아래 2.2.4의 (2)를 참고하라.

40) 위 2.1.8의 (2)를 보라.

41) Vulgata 관주란에서는 시편 1편3절 후반절의 관련 구절로서 신명기 17장19절(“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도 제시한다. 그렇지만, 두 구절은 넓은 의미에서 서로 관련될 따름이다.

42) 위 2.1.8의 (2)를 보라.

43) NIV 관주란에서는 ‘여호와와 율법’(the law of the LORD)의 관련 구절로 시편 19편7[8]절과 119편1절과 에스겔 11장20절(“내 율례를 좇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과 18장17절(“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변이나 이식을 취하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 아버지의 죄악으로 인하여 죽지 아니하고”)을 제시한다. 이 가운데서 마지막 두 구절은 시편 1편과 간접적으로 관련될 따름이다.

44) <왈라열라>는 그 셋째 자모 아래 억양 부호 때문에 그 다음 자음 <요드> 아래의 <스와>가 소리가 난 까닭에, 그렇지 않았을 경우의 <왈라일라>와 발음이 달라진 것이다. 아래의 주48에서 열거하는 19 군데 가운데서 4 군데(출13:21; 왕상8:59; 렘33:25; 시42:3[4])에서만 <왈라열라>

하는 히브리 낱말 <요맘>과 ‘밤 동안’을 뜻하는 히브리 낱말 <라일라>를 이어주는 접속사의 모음이 <아>인데서도 드러나듯이, 두 낱말이 한데 어우러져서 한 가지 뜻, 여기서는 ‘끊임없이’, ‘늘’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경우인데⁴⁵⁾, 이 점은 이사야 60장11절(“네 성문이 항상[<타미드>] 열려 주야로[<요맘 왈라일라>]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네게로 열방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오이라”)에서 이 표현이 ‘항상’의 병행 개념으로 쓰이고 있는 데서도 분명해진다. 이 표현은 이미 앞에서 언급한 여호수아 1장8절⁴⁶⁾ 말고도 출애굽기 13장21절(“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취사 주야로[<요맘 왈라일라>] 진행하게 하시니”)에서 시작하여 예레미야애가 2장18절(“저희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처녀 시온의 성곽아 너는 밤낮으로[<요맘 왈라일라>] 눈물을 강처럼 흘릴찌어다”)에 이르기까지⁴⁷⁾ 구약 성경에 모두 19번이나 나온다⁴⁸⁾. 시편에서는 이 표현이 32편4절(“주의 손이 주야로[<요맘 왈라일라>]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 같이 되었나이다 [셀라]”)과 42편3[4]절(“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네 하나님 어디 있느뇨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요맘 왈라일라>] 내 음식이 되었도다”)과 55편10[11]절(“저희가 주야로[<요맘 왈라일라>]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잔해함이 있으며”)에 들어 있다.

또 <라일라>와 <요맘>의 순서가 바뀌면서 그 둘이 단순 접속사(<위>)로 이어진 꼴 <라일라 위요맘>은 신명기 28장66절(“네 생명이 의심나는 곳에 달린 것 같아서

로 되어 있다.

45) 따라서 RSV 관주란과 NAS 관주란에서는 ‘주야’를 ‘낮’과 ‘밤’으로 구별하여 각각에 대한 관련구절로 시편 25편5절과 63편5절 및 6절을 제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46) 위 2.2.3을 보라.

47) 어떤 표현이 구약 성경에서 맨 처음 나오는 곳과 맨 나중에 나오는 곳을 말할 때, 이는 물론 히브리어 성경의 책 순서를 따르지 않고 개역 한글판 성경의 책 순서를 따른 것이다.

48) 출13:14; 레8:35; 민9:21; 수1:8; 왕상8:59; 대상9:33; 대하6:20; 느1:6; 4:9[3]; 시1:2; 32:4; 42:3[4]; 55:10[11]; 사60:11; 렘9:1[8:23]; 16:13; 33:20; 33:25; 애2:18. 이는 Gerhard Lisowsky, *Konkordanz zum Hebräischen Alten Testament* (Stuttgart: Württembergische Bibelanstalt, ²1958)에서는 시편 1편2절에 이 표현이 나온다는 사실이 얼른 확인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예레미야 33장25절(“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주야’의 약정[<브리타 요맘 왈라일라>]이 서지 아니할 수 있다든지 천지의 규례가 정한대로 되지 아니할 수 있다 할진대”)의 경우는 창세기 8장22절(“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요맘 왈라일라>]이 쉬지 아니하리라”)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서 ‘주야’는 시간 단위인 ‘낮’과 ‘밤’을 가리킨다. 이는 다른 구절에서는 ‘주야’가 한결같이 부사적으로 쓰인 것과는 달리, 창세기8장22절의 <요맘 왈라일라>는 문장의 주어부 가운데 한 부분을 이루고, 예레미야 33장25절의 <요맘 왈라일라>가 문장 주어부의 구성 요소로 나타난다는 데서도 드러난다. 또 레위기 8장35절(“너희는 ‘칠 주야’[<요맘 왈라일라 쉬브아트 야밈>]를 회막 문에 거하여 여호와와 부락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에 나오는 ‘주야’는 칠 일 동안이란 기한 안에서 ‘끊임없이’라는 뜻을 지닌다.

주야로[<라일라 위요맘>] 두려워하며 네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과 이사야 34장10절(“‘낮에나 밤에나’[<라일라 위요맘>] 꺼지지 않고 그 연기가 ‘끊임 없이’[<르올람>]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히 없겠고”)49)과 예레미야 14장17절(“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라일라 위요맘>] 꿍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 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창상을 인하여 망함이라”)에 나온다.

더 나아가서, 이와 비슷한 또 다른 표현인 <라일라 와욘>이 열왕기상 8장29절(“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라일라 와욘>]50)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행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과 이사야 27장3절(“나 여호와와 포도원지기가 됨이여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라일라 와욘>] 간수하여 아무든지 상해하지 못하게 하리로다”)과 에스더 4장16절(“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삼일을’[<셀로쉐트 야민 라일라 와욘>]51)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에 나온다.

이런 모든 구절을 시편 1편2절의 ‘주야로’의 관련 구절로 적을 필요는 없다. 우선 그 뜻을 밝혀 주는 이사야 60장11절과 시편에 나오는 다른 세 경우(32:4; 42:3; 55:10)와 구약 성경에서 맨 처음 나오는 경우인 출애굽기 13장21절의 관주란52)을 보도록 지시하면 될 것이다.

(3) 시편 1편에서 ‘묵상하다’로 옮긴 히브리 동사 <하가>는 앞서 언급한 77편 12[13]절53)과 143편5절(“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하기티 브콜 포올레카>]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도 나오고, <하가>와 비슷한 뜻을 지니는 히브리 동사 <시아호>는 앞서 언급한 119편97절 말고도 15절(“내가

49) 여기서는 이사야 60장11절의 경우와 비슷하게, <라일라 위요맘>이 <르올람>의 병행 개념으로 쓰이고 있다.

50) 칠십인역과 시리아어역에서는 이 구절의 병행 구절인 역대하 6장20절처럼 <요맘 왈라일라>를 추정하게 한다.

51) 이는 위의 주48에서 언급한 레위기 8장35절의 경우와 비슷하다.

52) 여기서도 이 표현과 위에서 든 이와 비슷한 표현이 쓰이는 구약의 모든 구절을 열거할 필요는 없고, 그 성격을 따라 대표적인 몇 가지만 적으면 될 것이다. 이를테면, 주야로 눈물 흘린다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예레미야 8장23절과 14장17절과 예레미야 애가 2장18절과 시편 42편3절은 시편 42편3절 아래 묶으면 되는데, 이 시편 42편3절은 이미 1편2절의 관련 구절로 제시되므로, 그냥 시편 1편2편 관주란을 보라고만 지시하면 저절로 해결된다. 또 느헤미야 4장9절은 1장6절과 같은 내용이므로 1장6절만 적으면 된다. 이리하여, 출애굽기 13장21절의 ‘주야로’의 관련 구절로는 ‘민9:21; 대상9:33; 느1:2; 시1:2’ 정도를 적으면 된다.

53) 위 2.2.3을 보라.

주의 법도를 묵상하며[<브픽쿠데카 아시하> 주의 도에 주의하며]), 23절(“방백들도 앓아 나를 궤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를 묵상하였나이다’[<아시아흐 브혹케카>]”), 27절(“나로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사를 묵상하리이다’[<위아시하 브니플르오테카>]”), 48절(“또 나의 사랑하는바 주의 계명에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를 묵상하리이다’[<위아시하 브혹케카>]”), 78절(“교만한 자가 무고히 나를 엎드러뜨렸으니 저희로 수치를 당케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를 묵상하리이다’[<아니 아시아흐 브픽쿠데카>]”), 148절(“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라시아흐 브이프라테카>]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145편 5절(“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사를 ‘나는 묵상하리이다’[<아시아>]”)에 나온다⁵⁴). 위에 언급된 119편의 구절들에서는 동사 <시아흐>가 한결같이 전치사 <브>로 시작하는 어구와 연결되며, 그 묵상의 대상으로 등장하는 ‘법도’(<픽쿠드>, 15, 78절)와 ‘율례’(<후크>, 23, 48절)과 ‘말씀’(<이프라>, 148절)이 모두 야훼의 <토라>와 바꾸어 쓸 수 있는 낱말이어서, ‘여호와와 율법을 묵상한다’는 시 1편2절 후반절과 통한다. 따라서, 이런 구절들은 ‘묵상하는’의 관련 구절로 제시하기에 특히 알맞다. 다만, 이 구절들을 다 이 곳 관주란에 제시하기 보다는 그 첫 구절인 119편15절의 관주란에 나머지 구절들을 제시하고, 여기서는 시119편15절의 관주란을 보라는 지시만 하면 될 것이다.

한편, 「관주 성경전서 개역 한글판」 2편 1절의 ‘허사를’의 첫 글자에 교를 윗첨자로 붙여 관주 표시를 하고, 그에 대해 관주란에서 시편 1편2절을 비교해 보라고 한 것은 2편1절 후반절에서 ‘경영하다’로 번역한 히브리 낱말 <하가>가 1편2절 후반절에도 나오지만, 문맥에 따라 ‘묵상하다’라는 다른 말로 번역되어 있다는 점을 말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관련성은 히브리어를 모를 경우에 한글 번역문만으로는 알아차리기 힘들다.

2.3. 3절

54) NIV 관주란에서는 시편 1편2절의 ‘묵상하다’(meditate)에 대한 관련 구절을 알려면 창세기 24장63절(“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수아흐>] 눈을 들어 보매 약대들이 오더라”)의 관주란을 보라고 지시하고 있고, 또 거기 관주란을 보면 여호수아 1장8절, 시편 1편2절, 77편12[13]절, 119편15절, 27절, 48절, 97절, 148절, 143편5절, 145편5절을 열거하고 있다. 그렇지만, 거기서 제시한 구절들이 동사 <하가>(수1:8; 시1:2; 77:12[13]; 143:5)나 <시아흐>(시 119:15, 27, 48, 97, 148; 145:5)를 쓰고 있는 반면에, 구약 성경에 단 한 번 창세기 24장63절에 나오는 동사 <수아흐>의 뜻은 확실하지 않고, 글의 흐름으로 볼 때는 ‘묵상하다’로 이해하기 보다는 오히려 ‘이리저리 다니다’는 뜻을 지니는 것으로 보인다(HAL IV, 1223쪽). 따라서 NIV의 이런 관주는 적절하지 않다고 하겠다. LB에서도 시편 119편148절을 시 1편2절 후반절의 관련 구절로 제시하고 있다.

2.3.1. 개요

3절에서는 ‘시냇가에’, ‘나무가’, ‘잎사귀가’, ‘그 행사가’의 첫 글자에 각각 *z*, *ts*, *ky*, *ty*가 윗첨자로 붙어 있고, 각 자모가 표시하는 부분에 관련되는 구절이 관주란에 적혀 있다. 그 구절들과 시편 1편3절을 견주어 보면, 관주란에서 문제 삼고 있는 것은 각각 ‘시내’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와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인 것을 알 수 있다. 이제 이 네 부분에 상응하는 부분을 관주란에서 제시한 구절들에서 찾아 그 관계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2.3.2. *z*: ‘시냇가에’

‘시냇가에’에서 ‘시내’는 <팔개 마음>의 번역인데, 관주란에서 이에 대한 관련 구절로 제시하는 시편 46편4[5]절(“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의 ‘시내’는 <나하르>여서 히브리 말로는 서로 다르다. 남성 복수 연계형인 <팔개>의 단수 절대형 <펠레그>는 본디 인공 수로나 운하를 가리키는 말⁵⁵⁾이고, <나하르>는 강을 뜻한다. <펠레그>의 이처럼 독특한 뜻을 똑똑히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가 이사야 32장2절(“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넷물[<팔개 마음>] 같을 것이며 곧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이다. 이 구절의 배경에서 시편 1편3절을 읽으면, 여기서 말하는 ‘시내’는 경치 좋고 비옥한 땅을 가로질러 흐르는 강이 아니라, 메마른 땅 한가운데 힘들게 파서 만든 물길을 뜻한다는 점을 잘 이해할 수 있다⁵⁶⁾.

따라서 이 경우에는 히브리 말로는 다른 뜻을 지니는 두 낱말이 같은 한글 낱말로 번역되어 마치 두 곳이 의미상으로 관련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단어의 뜻이나 문맥으로 보아도 그렇지 않기 때문에, 관주가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오히려, NIV 관주란에서 시편 46편4[5]절

55) HAL III(1983), 877쪽.

56) <팔개 마음>은 그밖에도 시편 119편136절(“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팔개 마음>] 같이 흐르나이다”)과 잠언 5장16절(“어찌하여 네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으며 네 도랑물[<팔개 마음>] 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과 21장1절(“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팔개 마음>] 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과 예레미야애가 3장48절(“처녀 내 백성의 파멸로 인하여 내 눈에 눈물이 시내[<팔개 마음>]처럼 흐르도다”)에 나오지만, 이런 구절에서는 그 본디 뜻이 이사야 32장2절에서만 잘 드러나지는 않는다.

다음으로 제시하는 65편9[10]절(“땅을 권고하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케 하시며 하나님의 강[<펠레그>]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 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희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디”)이 관련 구절로는 더 어울릴 것으로 보인다⁵⁷⁾. 그렇지만 개역 한글판으로 시편 1편3절의 ‘ 시내’와 65편9절의 ‘강’이 같은 히브리 낱말의 다른 번역이라는 점을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아, 실제로 이런 식의 관주는 본문 이해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달리 앞서 살펴 본 이사야 32장2절의 ‘넋물’은 시편 1편3절의 ‘ 시내’와 히브리어 본문상으로도 같고, 번역상으로도 그 내용이 잘 연결된다.

이리하여 ‘시냇가에’에 대한 관련 구절로는 이사야 32장2절을 적는 것이 좋겠다.

2.3.3. ㄷ: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이와 관련되는 구절로 관주란에서는 우선 예레미야 17장8절(“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과 에스겔 19장10절(“네 피의 어미는 물가에 심긴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으므로 실과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를 제시하고, 뒤이어 이와 비교해 볼 구절로 민수기 24장6절(“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와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과 욥기 29장19절(“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내 가지는 밤이 맞도록 이슬에 젖으며”)을 들고 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시편 1편3절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애츠 샤텔 알 팔개 마임 아쉐르 피르요 잇텐 브이트>)에 가장 가까운 것은, 위의 열거 순서에서 드러나듯이, 예레미야 17장8절의 ‘물가에 심기운 나무’(<크애츠 샤텔 알 마임>)의 ‘결실’(<아소트 페리>)이 그치지 않음에 대해 말하는 예레미야 17장8절이고, 그 다음은 ‘물가에 심긴 포도나무’(<게펜... 알 마임 샤텔>)의 ‘실과’(<프리아>)가 많음에 대해 말하는 에스겔 19장10절이다⁵⁸⁾. 특히 예레미야 17

57) NIV 관주란에서는 ‘ 시내’(streams)의 관련 구절로 또한 이사야 33장21절(“여호와께서는 거기서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 곳은 마치 노닐하는 배나 큰 배가 통행치 못할 넓은 하수[<느하림>]나 강[<여오림>]이 돌림 같을 것이라”)과 예레미야 31장9절(“울며 올 것이며 그들이 나의 인도함을 입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수[<나할래 마임>]가의 바른 길로 행하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비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을 들지만, 이 모두 시편 1편3절의 ‘ 시내’와는 직접적으로 관련된다고 보기 힘들다.

58) 시편 1편3절에서 ‘과실을 맺으며’만을 따로 떼내어 그에 대한 관련 구절을 찾아본다면, 위에서 언급한 예레미야 17장8절과 에스겔 19장10절 말고도, NIV 관주란처럼, 뒤이어 언급할 시편 92편14절과 아래 2.3.4에서 본격적으로 다룰 에스겔 47장12절을, 또 Weiser(71쪽)처럼 바태복음 7장18-19절(“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장8절의 경우에는 가뭄에도 청정한 잎에 대해 말함으로써 시편 1편 3절의 내용과 매우 비슷하다. 이리하여 대부분의 주석에서도 시편 1편과 예레미야 17장5-8절의 관계를 다룬다. 그렇지만, 예레미야 17장5-8절의 주제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인 점⁵⁹⁾에서, 시편 1편의 경우와 다르다. 유다 왕가에 대한 애가 가운데 나오는 에스겔 19장10절에서는 유다 왕가의 이전 상황을 ‘물가에 심은 포도나무’에 비긴다. 그런가 하면,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내용 가운데 들어 있는 민수기 24장6절에서는 이스라엘을 가리켜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카아라짐 알래 마임>)이라고 한 부분이 시편 1편3절에 상응한다. 이렇게 보면, 에스겔 19장10절은 차라리 민수기 24장6절과 마찬가지로 ‘비’교할 본문으로 적었으면 더 나았을 것이다. 여기서도 일반 관주와 비교 관주를 구별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무튼 이 두 구절은 ‘물가에 심은 나무’의 비유가 구약 성경의 전통에서는 공동체성을 띠는 점을 암시한다.

욥기 29장19절의 경우는 ‘뿌리가 물로 뺏어나간다’는 비유가 간접적으로 시편 1편3절의 나무 비유와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⁶⁰⁾. 그렇지만, 이 둘 사이의 관련성은 너무 일반적이어서 관주란에서 욥기 29장19절은 빼도 될 것이다.

이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에 대한 관주는 비슷한 표현과 내용의 관련 구절들을 알려줌으로써, 이 표현의 뜻을 비교적 넓은 관점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을 들 수 있다. RSV 관주란과 「해설 관주 성경전서 독일성서공회판」에서는 시편 92편12[13]-14[15]절(“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와 그의 집에 심겼음이여<쉬틀림>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도 시편 1편3절 전체의 관련 구절도 본다.

59) 이에 대해서는 줄고, “누구를 신뢰할 것인가?(예레미야 17장5-10절), 「성경연구」(전북 완주: 한국성경연구원) 제39호(1998년 2월호), 31-49쪽을 보라.

60) NIV 관주란에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planted by streams of water)에 대한 관련 구절을 알려면 민수기 24장6절의 관주란과 욥기 14장9절(“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발하여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관주란과 에스겔 17장5절(“또 그 땅의 종자를 취하여 옥도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 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관주란을 보라고 지시한다. 민수기 24장6절 관주란을 보면 욥기 29장19절과 시편 1편3절과 104편16절(“여호와와 나무가 우택에 흡족함이요 곧 그의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이로다”)과 에스겔 31장5절(“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높으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났고”)이 관련 구절로 제시되어 있다. 욥기 14장9절 관주란을 보면, 욥기 29장19절과 시편 1편3절과 예레미야 17장8절과 에스겔 31장7절(“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우매”)이 관련 구절로 열거되어 있다. 에스겔 17장5절 관주란에서는 신명기 8장7-9절과 시편 1편3절과 이사야 44장4절(“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 같이 할 것이라”)과 에스겔 31장5절을 관련 구절로 열거한다. 한편, JB 관주란에서는 여기에 또한 요한계시록 22장2절(“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 나무가 있어 열 두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을 관련 구절로 제시한다. 그렇지만 이런 구절들 가운데서 너무 넓은 의미에서 시편 1편3절과 관련되는 것은 관주란에 넣을 필요가 없다.

에서 이해하게 한다⁶¹⁾).

2.3.4. ㄱ: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이는 <알래후 로 입불>의 번역인데, 관주란에서 제시한 에스겔 47장12절(“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로 입불 알래후>]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에서는 이 표현이 다만 동사 문장의 일반 어순을 따라 동사가 먼저 나온 뒤에 주어 가 나타난다. 문맥상으로는 에스겔서의 경우에 이는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와서 이루어진 큰 강가에(<알 나하르>) 자라난 온갖 과일 나무의 잎사귀에 대한 내용이어서 시냇가에(<알 팔개 마임>) 심은 나무의 잎사귀에 대해 말하는 시편 1편과 차이가 있다.

다음으로 관주란에서는 이와 비교해 볼 본문으로 이사야 34장4절(“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잔함[<입불>]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키느볼 알레>]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을 언급한다. 이 구절에서는 야훼 하나님이 세계를 심판하실 때에 천체가 포도나무 잎이나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듯이 마를 것이라고 하면서, 시편 1편3절에서도 나온 명사 ‘잎’(<알레>)와 동사 ‘마르다’(<나발>)가 함께 쓰이고 있다. 이로 보면, 잎 마름의 비유는 하나님이 심판으로 내리시는 재앙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에 대한 관주에서는 한편으로 같은 히브리어 표현이 쓰인 구절을, 다른 한편으로는 그 개념이 대조적으로 쓰이는 구절을 알려 준다⁶²⁾.

61) NIV 관주란에서는 “그는 나무와 같다”(He is like a tree, <위하야 크에츠>)의 관련 구절로서 시편 52편8[10]절(“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92편12[13]절(“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발육하리로다”), 128편3절(“네 집 내실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상에 돌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예레미야 11장16절(“나 여호와가 그 이름을 일컬어 좋은 행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었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스가랴 4장3절(“그 등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하고”)을 열거하고 있는데, 이는 관련 구절의 범위를 너무 넓게 잡은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시편 52편8[10]절과 92편12[13]절은 시편 1편3절 JB 관주란에도 언급되어 있다.

62) NIV 관주란에서는 ‘그 잎사귀’(whose leaf, <알래후>)의 관련 구절로서 이사야 1장30절(“너희는 ‘잎사귀 마름’[<노벨레트 알래후>, 직역하면 ‘그것의 잎사귀가 마름’] 상수리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와 64장6[5]절(“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패함이 잎사귀[<알레>]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 같이 우

2.3.5. ㄷ: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에 대한 관련 구절로서 관주란에서는 먼저 창세기 39장3절(“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과 23절(“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을 제시하고 그밖에 견주어볼 구절로, 곧 비교 관주로 시편 128편2절(“네가 네 손이 수고한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과 이사야 3장10절(“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임이요”)을 든다.

창세기 39장3절의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콜 아쉐르 후 오세 아도나이 마츨리아호>, 직역하면 ‘그가 하는 것마다 야훼께서 성공하게 만드신다’)에서 야훼가 주어로 등장하고 <찰라호>의 히필형이 사동(使動)의 의미를 띠는 점에서, 히필형이 그대로 자동사로 쓰이는 시편 1편의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콜 아쉐르 야아세 야츨리아호>, 직역하면 ‘그가 하는 것마다 성공이다’)와 다르다. 한글 번역으로는 창세기 39장23절에도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아쉐르 후 오세 아도나이 마츨리아호>)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본문으로는 여기에 <콜>(‘마다’)이 빠져 있다. 이 두 구절은 어려움에 빠진 요셉을 하나님께서 도와서서 요셉이 형통하게 된 것을 표현하고 있어서, 이런 배경에서 시편 1편3절을 읽으면, 악인들 가운데서 고난을 받으나 진실히 야훼의 <토라>를 중심으로 의롭게 사는 한 사람의 성공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관주란의 이런 구절은 본문에서 내세우는 복 있는 사람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성공하는 사람이라는 점을 암시한다.

시편 128편2절에서 ‘형통하리로다’와 이사야 3장10절의 ‘복이 있으리라’는 히브리어 본문의 형용사 <토브>의 번역이어서 1편3절에 쓰인 <찰라호> 히필형과는 다르다. 그렇지만, 시편 128편1절(“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과 연결시켜 2절을 읽어 보면, 그 분위기가 시편 1편1-3절과 아주 다른 것은 아니다. 이 경우는 히브리어로는 서로 다른 두 낱말이 같은 한글 낱말로 옮겨짐으로써, 서로 관련성을 지니게 된 보기로 여길 수 있다. 이와는 달리, 이사야 3장10절도 의인에게 닥칠 좋은 결과를 말하므로 시편 1편1-3절과 어느 정도 비슷한 느낌을 줄 수 있지만, 한글 번역에서 ‘형통하다’라는 말 대신에 ‘복이 있다’는 말이

리를 몰아 가나이다”)을 제시한다. JB 관주란에서는 이 밖에도 잠언 11장28절(“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폐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도 관련 구절의 하나로 든다. 그렇지만 이런 구절들은 넓은 의미에서 시편 1편3절과 관련될 따름이다.

나옴으로써, 오히려 1절 첫머리의 관련 구절로 간주될 가능성이 커진다. 따라서 이는 관련 구절로 알맞지 않다.

아무튼, ‘형통하다’라는 표현 자체만 두고서 그 관련 구절을 찾는다면, 시편 128편2절이나 이사야 3장10절보다는 오히려 이미 앞에서 부분적으로 언급한 여호수아 1장7-8절(“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타스킬 브콜 아쉐르 텔레크>] ⁸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타츨리아흐>] ‘네가 형통하리라’[<타스킬>]”)이 더 낫다⁶³). 여기서 히브리 동사 <찰라흐> 히필형과 <사칼>의 히필형이 실제로는 같은 뜻을 지닌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 이로부터 사무엘상 18장14절(“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와여히 다위드 러콜 드라카우 마스킬>, 직역하면, ‘그리고 다윗이 자기의 모든 길에서 형통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과 열왕기하 18장7절(“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계시매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브콜 아쉐르 애채 야스킬>] 저가 앓수르 왕을 배척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도 시편 1편3절의 관련 구절로 볼 수 있는 길이 열린다⁶⁴). 이 두 구절에서 <찰라흐> 히필형과 마찬가지로 ‘형통하다’는 뜻으로 쓰이는 <사칼>의 히필형이 실체사 <콜> (‘다’, ‘모든’, ‘...마다’)과 함께 쓰인다는 점에서, 시편 1편3절에 매우 가깝다. 그 말하는 바가 다윗의 전면적인 성공에 대한 것이라고 볼 때, 150개의 시편 가운데 ‘다윗의 시’라는 표제가 붙은 시가 가장 많은 점을 생각한다면, 시1편에서 말하는 형통을 다윗의 성공적인 삶과 관련시켜 이해할 수도 있다.

2.4. 4절

2.4.1. 개요

63) 앞 2.2.3을 보라. Hossfeld/Zenger(47쪽)도 시편 1편3절의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와 관련되는 구절로 여호수아 1장7절을 들고 있다.

64) 이 두 구절은 NIV 창세기 39장3절 관주란에 제시되어 있다. NIV 관주란에서는 시편 1편3절의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Whatever he does prospers)에 대한 관련 구절을 알려면 창세기 39장3절의 관주란을 보라고만 하는데, 거기를 보면 창세기 39장23절, 사무엘상 18장14절, 열왕기하 18장7절, 역대하 20장20절(“이에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야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찌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위하츨리후>] 하고”), 시편 1편3절, 128편2절, 이사야 33장6절(“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을 관련 구절로 제시하고 있다.

4절의 경우에는 ‘바람에’의 첫 글자에 표이 윗첨자로 붙어 있고, 관주란에서는 이에 대한 관련 구절로 욥기 21장18절을, ‘보’라고 한다. 이 구절과 시편 1편4절을 견주어 보면, 여기서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를 문제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4.2. 표: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 경우는 시편 1편에 나오는 유일한 ‘보라’ 관주⁶⁵⁾이다. 그렇다면, 이 ‘바람에 나는 겨’(<캄모츠 아쉐르 텃드펜누 루아흐>)라는 용어가 욥기 21장18절(“그들이 ‘바람 앞에 검불 같이’[<크테벤 리프내 루아흐>], ‘폭풍에 불려가는 겨 같이’[<크모츠 그나밧투 썬파>] 되는 일이 몇 번이나 있었느냐”)에 최초로 나온다는 사실이 이 관주란에서 말하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시편 1편4절의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에서 함께 나오던 ‘겨’(<모츠>)와 ‘바람’(<루아흐>)가 욥기 21장18절에서는 각각 후반절과 전반절에 나누어져 나온다. 이 구절은 욥이 악인들에게 하나님의 징벌이 닥치지 않는다고 탄식하는 가운데 나오는 말로서 악인들의 운명은 본디 덧없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한다. 이렇게 보면, 욥기 21장18절은 시편 1편4절 후반절에서 말하는 내용의 배경을 알려 준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구절을 일반 관주로 표시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 밖에도 개인 탄원사에서 박해를 받는 시인이 적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기도하는 말인 시편 35편5절(“저희로 ‘바람 앞의 겨와 같게’[<크모츠 리프내 루아흐>] 하시고 여호와와 사자로 몰아내소서)도 관련 구절로 볼 만하다⁶⁶⁾. 또, 바람에 나는 겨의 비유는 하나님 백성의 적들에 대한 야훼 하나님의 심판 장면을 묘사하는 이사야 17장13절(“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의 물려움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룻다프 크모츠 하림 리프내 루아흐>]”)과 29장5절⁶⁷⁾(“그렇지라도 네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불려가는 겨 같으리니’(<크모츠 오베르>) 그 일이 경각간에 갑자기 이를 것이라”)에 쓰이기도 하는데, 이 두 구절도 관주란에서 제시할 만하다⁶⁸⁾. 더 나아가서 ‘겨’(<모츠>)와 비슷한 뜻을 지니는

65) 이에 대해서는 앞의 주1에서 인용한 민영진의 책, 53쪽을 보라.

66) JB, KJV1, NAS, LB, EÜ의 관주란, Seybold.

67) KJV1에서는 욥기 21장18절 다음에 이사야 29장5절을 들고 있다.

68) 이 밖에도 관련 구절로서 Weisur(72쪽)와 Kraus(139쪽)는 호세아 13장3절(“이러므로 저희는 아침 구름 같으며 쉽게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 마당에서 광풍에 날리우는 쪽정이[<모츠

‘초개’(<카쉬>)가 비슷한 문맥에서 사용되는 시편 83편12[14]절(“나의 하나님이며 저희로 굴러가는 검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초개 같게’[<크카쉬 리프내 루아흐>] 하소서”)도 관련 구절로 들 수 있다⁶⁹⁾.

2.5. 5절

2.5.1. 개요

5절의 경우에는 ‘심판율’과 ‘의인의’의 첫 글자에 ㅎ과 ㅏ가 각각 윗첨자로 붙어 있고, 두 자모가 표시하는 부분에 관련되는 구절이 관주란에 적혀 있다. 그 구절들과 시편 1편5절을 견주어 보면, 여기서 문제 삼고 있는 것은 ‘견디지 못하며’와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인 것을 알 수 있다. 이제 이 두 부분에 상응하는 부분을 관주란에서 제시한 구절들에서 찾아 그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5.2. ㅎ: ‘견디지 못하며’

>]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을, Hossfeld/Zenger(48쪽)는 스바냐 2장2절(“명령이 시행되기 전, 광음이 ‘겨 같이 날아 지나가기 전’[<크모츠 아바르 욘>], 여호와와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기 전, 여호와와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과 말라기 4[3]장1[19]절(“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개[<카쉬>]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도 제시한다. 그렇지만, 이런 구절들은 넓은 의미의 관련 구절이므로, 주석에서 다룰 것이지, 관주란에 넣을 것은 아니다.

69) <카쉬>는 욥기 13장25절(“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래시며 마른 검불[<카쉬>]을 따르시나이까”), 이사야 40장24절(“그들은 겨우 심기웠고 겨우 뿌리웠고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의 부심을 받고 말라 회리바람에 불려가는 ‘초개 같도다’[<카카쉬>]”)과 예레미야 13장24절(“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초개 같이’[<크카쉬 오베르 르루아흐 미드바르>] 홀으리로다”)에도 나온다. NIV 관주란에서는 “그들은 겨와 같도다”(They are like chaff, <감모츠>)에 대한 관련 구절을 알려면 우선 욥기 13장25절의 관주란을 보라고 지시한 다음에, 이사야 40장24절과 예레미야 13장24절을 그 밖의 관련 구절로 덧붙이고 있다. 욥기 13장25절의 관주란을 보면, 욥기 21장18절, 시편 1편4절, 35편5절, 83편13[14]절, 이사야 17장13절, 42장3절(“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꺾겨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43장17절(“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 내어서 그들로 일시에 엎드러져 일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꺾겨가는 등불 같게 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호세아 13장3절(“이러므로 저희는 아침 구름 같으며 쉽게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 마당에서 광풍에 날리우는 ‘쭉정이 같으며’[<크모츠>]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이 관련 구절로 열거되어 있다. 더 나아가서, JB 관주란에서는 다니엘 2장35절(“때에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셔져 여름 타작마당의 겨[아람어 <우르>] 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도 관련 구절로 본다. 이런 구절들도 넓은 의미의 관련 구절이어서, 관주란에 다 넣을 필요는 없다.

이에 대한 관련 구절로서 관주란에서는 시편 5편5[6]절(“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76편7[8]절(“주 곧 주는 경외할 자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나훔 1장6절(“누가 능히 그 분노하신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 진노를 감당하랴 그 진노를 불처럼 쏟으시니 그를 인하여 바위들이 깨어지는도다”), 누가복음 21장36절(“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에베소서 6장13절(“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을 제시한다.

이 가운데서 시편 1편5절의 ‘견디지 못하며’(<로 야쿠무>, 직역하면 ‘그들은 서지 못하리라’)처럼 동사 <쿵>(‘서다’)가 전치사 <브>(‘...에’)와 함께 나오는 것은 나훔 1장6절의 ‘진노를 감당하랴’(<야쿵 바하론 압포>, 직역하면 ‘그의 진노에 서리이까’)인데, 이 경우 <쿵 브...>는 전반절의 <아마드 리프내...>(‘...앞에 서다’)과 나란히 나온다. 그리하여, 시편 76편7[8]절의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야아모드 르파네카>, 직역하면 ‘당신 앞에 서리이까’)에서 동사가 <쿵>이 아닌 <아마드>이지만, 의미상으로는 마찬가지로 알 수 있다. 시편 5편5[6]절의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로 이트얏차부 ... 르네게드 애네카>, 직역하면 ‘당신의 눈들 앞에 자리잡지 못하리이다’)의 경우에는 히브리어 동사와 전치사가 시편 1편의 경우와 다르지만, 그 내용은 앞의 두 경우와 비슷하다. 누가복음 21장36절에서 말하는 ‘인자 앞에 서다’(<스타테나이 엠프로스텐 투 휘우 투 안트로푸>)은 마지막 때의 온갖 재난을 피하여 심판의 날에 심판자 앞에 나서는 것을 말하고, 에베소서 6장13절의 ‘서다’(<안티스테나이>)도 비슷한 문맥에서 쓰이고 있다.

이처럼 ‘견디지 못하며’의 관주는 종말론적인 심판 상황을 생각하게 해 준다.

그렇지만, ‘...에 서다’(<쿵 브...>)라는 표현은 시편 24편3절(“여호와와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고”)의 ‘...에 설 자가 누구고’(<미 야쿵 브...>, 직역하면 ‘누가 ...에 서리요’)에도 나오므로, 시편 1편5절 전반절은 일차적으로 아주 현실적으로 예배 공동체와 관련하여 악인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최후의 심판을 겨냥하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다⁷⁰⁾.

또 한 가지 다른 문제는, 히브리 동사 <쿵>이 시편 1편5절과 24편5절과 나훔 1장6절에서 문맥을 따라 각각 ‘견디다’와 ‘서다’와 ‘감당하다’로 번역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구절로 제시된 그 어느 구절에도 ‘견디다’라는 한글 동사를 볼 수 없

70) Kraus, 139-140쪽.

어서, 성서 고전어를 모르는 독자로서는 이런 구절들이 그저 의미상으로 관련되는 구나 하는 정도의 생각을 할 수 있을 따름이라는 점이다.

더 나아가서, 앞에서 든 구절들을 관련 구절로 제시하려면, 관주 표시를 ‘심판을’에 할 것이 아니라, ‘견디지’의 첫 글자에 해야 할 것이다.

2.5.3. †: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이는 <햇타임 바아다트 찻디킴>(직역하면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있다’이지만 전반절에 나오는 부정어 <로>가 여기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있지 못하리라’는 뜻이 된다)의 번역인데, 관주란에서는 이것과 비교할 구절로 에스겔 13장9절(“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브쫘드 암미 로 이호유>]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줄 알리라”)을 든다. 이 구절에는 시편 1편5절에 쓰인 히브리 낱말이 부정어 <로>를 빼놓고는 전혀 나오지 않지만, 내용상의 유사성 때문에 이를 일반 관주 아닌 비교 관주로 다룬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1절의 ‘좃지 아니하며’의 관련 구절로 든 잠언 4장14-15절도 비교 관주로 표시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비교 관주와 일반 관주의 구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또한 에스겔 13장9절을 여기서 관련 구절로 제시하려면, 관주 표시를 ‘의인의’에 할 것이 아니라 ‘죄인이’에 해야 할 것이다.

아무튼 이 구절을 배경으로 한다면, 시편 1편5절의 ‘죄인들’은 하나님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 없이 제맘대로 활동하는 거짓 종교인들을, ‘의인들’은 야훼 하나님의 참된 백성을 가리키게 된다.

2.5.4. 새 관주가 필요한 경우

이 밖에 5절에서 관주를 더 붙일 만한 경우로는 ‘심판을’과 ‘의인의 회중에’를 생각해 볼 수 있다.

(1) ‘심판(<미쉬파트>)을’에 대한 관련 구절로는 시편 9편7[8]절(“여호와께서 영영히 앗으심이여 심판[<미쉬파트>]을 위하여 보좌를 예비하셨도다”), 8[9]절(“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심이여[<이쉬포트>]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시리로다”), 16[17]절(“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미쉬파트>]을 행하셨음이여 악인은 그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었혔도다 [헝가운, 셀라])을 들 만하다(7). 개인 감사시

인 이 시편의 세 구절에서 시인은 야훼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세계 심판에 대해 말한다. 이러한 고백은 58편11[12]절(“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엘로힘 쇼프팀>이 계시다 하리로다”)과 전도서 3장17절(“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이쉬 포트 하엘로힘>]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를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⁷²⁾.

(2) ‘의인의 회중에’(브아다트 찻디킴)에 대한 관련 구절로서는 시편 89편5[6]절(“여호와여 주의 기사를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의 회중’[<크할 크도솜>]에서 찬양하리이다”)과 7[8]절(“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회중’[<쓰드 크도솜>]에서 심히 엄위하시오며 둘러 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자시니이다”)과 111편1절(“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의 회와 공회 중에서’[<브쑤드 여사림 위애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과 149편1절(“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회중’[<크할 하시딤>]에서 찬양할지어다”)을 들 수 있다. 이 네 구절 가운데서 시편 1편5절과 마찬가지로 ‘회중’을 뜻하는 히브리 명사 <애다>가 쓰이는 경우는 111편1절 뿐이고, 나머지 경우는 이와 비슷한 낱말인 <카할>이나 <쑤드>가 쓰인다. 아무튼 이 네 구절과 관련시켜 보면, 시편 1편에서 말하는 ‘의인들’(<찻디킴>)은 결국 ‘거룩한 자들’(<크도솜>)이요, ‘경건한 자들’(<하시딤>)로 이해할 수 있다⁷³⁾. 또한 이 네 시편에서 말하는 ‘회중’은 야훼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드리는 회중이다⁷⁴⁾.

71) RSV 관주란과 NRSV 관주란과 NAS 관주란.

72) NIV 관주란에서는 ‘심판에’(in the judgment)에 대한 관련 구절을 알려면 욥기 19장29절(“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이 있는 줄’[<샷딘>]을 알게 되리라”)의 관주란을 보라고만 지시한다. 거기를 보면,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길게 설명하는 욥기 27장13-23절, 시편 1편5절, 위에서 언급한 9편7[8]절과 58편11[12]절과 전도서 3장17절 말고도 전도서 11장9절(“청년이어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네 눈이 보는대로 좇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위다으 키 알 콜 엘레 여비아카 하엘로힘 밤미쉬파트>]”)과 12장14절(“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아버 브미쉬파트>]”)을 관련 구절로 열거하고 있다. 야훼 하나님의 악인 심판에 대한 성경 구절은 많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위에서 말한 정도에서 관련 구절의 범위를 제한하기로 한다.

73) RSV 관주란과 NAS 관주란에서는 ‘의인의 회중’(the assembly of the righteous)의 관련 구절로서 시편 89편5[6]절과 7[8]절을, NRSV 관주란에서는 시편 111편1절과 149편1절을 제시한다.

74) NIV 관주란에서는 ‘회중’(assembly)의 관련 구절로 시편 26편12절(“내 발이 평탄한데 섰 사오니 회중[<마크헬림>]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35편18절(“내가 대회[<카할 라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82편1절(“하나님이 ‘하나님의 회’[<아다트 엘로힘>] 가운데 서시며 재판장들 중에서 판단하시되”), 89편5절, 107편32절(“백성의 회[<

2.6. 6절

2.6.1. 개요

6절의 경우에는 ‘의인의’와 ‘인정하시나’의 첫 글자에 ㅏ와 ㅑ가 각각 윗첨자로 붙어 있고, 두 자모가 표시하는 부분에 관련되는 구절이 관주란에 적혀 있다. 그 구절들과 시편 1편5절을 견주어 보면, 이 관주란에서 문제 삼고 있는 것은 각각 ‘의인의 길’과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인 것을 알 수 있다. 이제 이 두 부분에 상응하는 부분을 관주란에서 제시한 구절들에서 찾아 그 관계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2.6.2. ㅏ: ‘의인의 길’

이는 <데레크 찾디킴>(직역하면 ‘의인들의 길’)의 번역인데, 이에 대해서 관주란에서 시편 37편5절(“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을 제시하는 것을 보면, 아마 이 구절의 ‘너희 길’(<치드케카>, 직역하면 ‘너의 길’)과 본문의 ‘의인의 길’이 상응한다는 생각을 표현하려고 한 듯하다. 시편 37편은 악인의 번영을 보고 회의에 빠진 의인에게 야훼 하나님의 올바른 다스림에 대해 가르치는 지혜시이므로, 이 구절에서 ‘너’는 의인(12,16,17,21,25,29,30,32,39절)이다. 시편에서 ‘의인’과 ‘길’은 자주 쓰이는 낱말인데, 이 둘이 한데 어우러지는 경우가 시편 1편5절과 37편5절이라 할 때, 시편 1편의 ‘의인’도 37편의 ‘의인’처럼 번영하는 악인들에게 박해를 받는 의인(37:12,14-15,32)으로 이해할 가능성이 생긴다.

다른 한편으로, <데레크>와 비슷한 낱말인 <오라호>도 ‘길’로 번역되므로, 잠언 2장20절(“지혜가 너로 ‘선한 자의 길’[<데레크 토빔>]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오루호트 찾디킴>]을 지키게 하리니”)과 4장18절(“‘의인의 길’[<오라호 찾디킴>]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도 시편 1편6절의 ‘의인의 길’과 관련되는 구절로 볼 수 있다. 특히 4장18절의 ‘의인의 길’은 19절의 ‘악인의 길’(<데레크 르샤임>), 14절75)의 ‘사특한 자의 첩경’(<오라호 르샤임>) 및 ‘악인의 길’(<데레크 라임>)과 대조되는 개념이어서, 시편 1편 6절에서 표현하는

크할 암>에서 저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저를 찬송할찌로다”), 111편1절, 149편1절을 열거하고 있다.

75) 시편 1편1절의 관련 구절 가운데 하나인 잠언 4장14절에 대해서는 이미 앞 2.1.3에서 언급한 바 있다.

‘의인의 길 - 악인의 길’이라는 대립 구도에 잘 어울린다. 잠언 2장20절에서 말하는 ‘의인의 길’은 ‘선한 자의 길’, ‘생명길’(<오로호트 하이임>, 19절), ‘정직한 길’(<오호로트 요셰르>, 13절), ‘선한 길’(<마아갈 토브>, 9절), ‘공평의 길’(<오르호트 미쉬파트>, 8절), ‘그 성도들의 길’(<데레크 하시다우>, 8절)로서, ‘악한 자의 길’(<데레크 라오>, 12절), ‘어두운 길’(<다르케 호쉐크>, 13절), 음부로 기울어진 길(<마아글로트>, 18절)과 정반대되는 길이다⁷⁶⁾.

2.6.3. 4: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이에 <요대아으 아도나이>(직역하면 ‘야훼께서 알고 계신다’)의 번역인데, 이에 대한 관련 구절로 관주란에서는 시편 31편7[8]절(“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곤란을 감찰하사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고’[<야다아타 브차로트 납쉬>, 직역하면 ‘당신은 환난 가운데서 내 영혼을 아셨고’]”)과 37편18절(“여호와께서 완전한 자의 날을 아시니[<요대아으>] 저희 기업은 영원 하리로다”)과 144편3절(“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왓테다에후>] 인생이 무엇이 관대 저를 생각하시나이까”)과 나훔 1장7절(“여호와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요대아으>]”)을 제시한 다음에, 비교할 구절로서 요한복음 10장14절(“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과 디모데후서 2장19절(“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을 들고 있다.

대적들의 박해 가운데서 야훼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면서 야훼의 구원을 간구하는 시편 31편의 시인은 ‘주께서...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고’라고 고백하는데, 이 경우 ‘내 영혼’은 곧 ‘나 자신’을 뜻하므로, 이 고백은 의인들의 길을 야훼께서 아신다고 한 시편 1편6절의 진술보다 더 강한 힘을 지닌다. 이 점은 144편3절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다만 거기서는 야훼께서 아시는 대상이 의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자체이어서, 1편6절의 경우보다 훨씬 더 포괄적이다. 니느웨에 대해 재앙을 선포하는 나훔서의 서론 부분에 나오는 1장7절에서 야훼께서 아시는 대상은 야훼를 의뢰하는 자들인데, 이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킨다. 여기에 나타나는, 이방 족속과 하나님 백성의 대립 구도는 하나님 백성 안에서 악인들과 의인들을 나누는 시편 1편의 대립 구도에 상응시킬 수 있다. 시편 37편18절에서 야훼께서 아시는 것은 ‘완전한 자들의 날들’인데, 이 경우 ‘완전한 자들’은 번

76) Craigie(58쪽)는 시1편에 나오는 용어와 교훈이 특히 잠언의 사상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면서 잠언 2장12-15,20-22절과 견주어 보라고 한다.

영하는 악인들에게 박해를 당하는 의인들을 가리킨다. 다만, 동사 ‘알다’의 목적어가 사람이 아니라 ‘날들’인 점에서 하나님과 의인들의 관계가 앞의 경우들보다 조금 약하게 표현되어 있다.

이처럼 시편 1편6절의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에 대한 관주란에서 제시한 위의 구절들에서는 야훼를 주어로 하는 동사 ‘알다’(<야다>)가 여러 가지 문맥에서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일 수 있음을 알려 준다. 다만, 시편 1편6절에서만 이를 ‘인정하다’로 번역해 놓아, 이것이 바로 관련 구절에 한결같이 나오는 ‘알다’와 히브리어로 같은 낱말이라는 점을 얼른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아 문제가 된다. 그리하여, 히브리어 본문을 읽기 힘든 독자들은 ‘인정하다’라는 한글 낱말이 들어 있는 관련 구절을 관주란에서 하나도 제시하지 않는 사실을 이상하게 여길 것이다.

예수께서 ‘내 양’(<타 에마>, 직역하면 ‘내 것들’)을 아신다고 하신 요한복음 10장14절을 관주란에서 시편 1편6절 전반절과 비교할 구절로 든 것은, 예수님과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의 관계가 야훼와 야훼께 속한 의인들의 관계에 상응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하나님의 참된 일꾼과 그릇된 일꾼들을 구별하면서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에그노 퀴리오스 투스 온타스 아우투>, 직역하면 ‘주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아신다’)고 하는 디모데후서 2장19절의 표현은 모세에게 맞서다가 망하게 된 고라 일당과 거기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을 구별하여 말하는 민수기 16장5절(“고라와 그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가로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리니”)의 한 부분(‘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 보이시고’, <요다 아도나이에트 아쉐르 로>, 직역하면 ‘야훼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를 알게 하시고’)을 칠십인역(‘야훼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를 아시고’)에서 인용한 것이다⁷⁷⁾.

77) 개역 한글판이 이 부분을 칠십인역을 따라 번역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 독자로서는 그 관련성을 알아차리기 힘들므로, 이 구절은 관주란에 넣지 않는 것이 좋다. Hossfeld/Zenger (49쪽)에서는 이 밖에도 야훼 하나님이 각각 모세와 예레미야를 아신다고 하는 출애굽기 33장12절(“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나더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여다으티카 브쉐>]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과 예레미야 1장5절(“‘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여다으티카>]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도 관련 구절로 본다. 한편, Dahood(5쪽)는 시편 1편6절의 <야다>는 ‘안전히 지키다’, ‘돌보다’, ‘보호하다’의 뜻을 지니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31편7절말고도 9편10[11]절(“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호세아 13장5절(“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권고하였거늘’[<여다으티카>]”), 아모스 3장2절(“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등도 관련 구절로 볼 수 있다고 보지만, 시편 9편11절의 경우에는 ‘알다’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본문의 경우에 어울리지 않고,

아무튼 개역 한글판의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관주란에서는 구약 관련 구절들은 일반 관주로, 신약 관련 구절들은 비교 관주로, 관련 구절을 두 범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지만, 신구약 관련 구절 모두가 여러 가지 문맥에서 본문의 경우와 견주어 볼 만한 식으로 이 개념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구분이 별 설득력이 없다. 만일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면, 2절의 ‘여호와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의 관련 구절로 소개된 로마서 7장22절도 일반 관주 아닌 비교 관주로 표시해야 했을 것이다.

한편 예레미야 12장3절(“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앗타 아도나이 여다으타니>]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한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 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 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예비하옵소서”)과 15장15절(“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앗타 야다으타 아도나이>] 원컨대 나를 기억하시며 권고하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을 인하여 나로 멸망치 말게 하옵시며 나를 위하여 내가 치욕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다으>]”)과 17장16절(“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좇았사오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치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바라[<앗타 야다으타>]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와 18장23절(“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락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앗타 아도나이 야다으타>]78) 그 악을 사하지 마시며 그 죄를 주의 목전에서 도말치 마시고 그들로 주의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의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일꾼이 자신의 무고함이나 자신이 무고하게 괴로움을 겪는 상황을 알아주실 야훼에 대한 신뢰를 고백하면서 ‘주께서 나를 아신다’(<앗타 여다으티카>, 직역하면 ‘당신만큼은 나를 아신다’) 또는 ‘주께서 아신다’(<앗타 야다으타>)고 한다79). 이런 네 구절은 다 관련 구절로 제시할 만하지만, 낱말이 다 적을 필요 없이 그 첫 구절인 예레미야 12장3절만 적고, 나머지 15장15절과 17장16절과 18장23절은 12장3절의 관주란에 열거한 뒤에, 시편 1편6편에서는 예레미야 12장3절의 관주란을 보도록 지시만 하면 될 것이다.

더 나아가서, 시편 139편 1절(“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태다으>]”)와 23-24절(“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다으 르바비>]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다으 사르압파이>]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

다른 구절들도 넓은 뜻으로 볼 때, 시편 1편6절과 관련되므로, 관주란에 꼭 넣지 않아도 된다.

78) 히브리 낱말의 순서대로 옮긴다면, ‘당신이, 야훼여, 아시오니’로 되는데, 개역 한글판에서는 이 세 낱말을 다 분리시켜 번역했다.

79) 이 네 구절은 이른바 예레미야의 고백에 속하는 본문들에 들어 있다. 이에 대해서는 Dong Hyun BAK, *Klagender Gott, klagender Menschen. Studien zur Klage im Jeremiabuch* (BZAW 192)(Berlin/New York: Walter de Gruyter, 1990), 117. 135. 156-157. 179쪽을 참고하라.

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데레크>로 인도하소서”)도 보기에 따라서는 시편 1편 6절의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와 관련되는 구절로 들 수 있다⁸⁰⁾.

2.6.4. 새 관주가 필요한 경우

이 밖에 6절 후반절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데레크 르샤임 토배드>) 전체와 ‘악인의 길’에 관주를 더 붙일 수 있다.

(1) 명사 ‘악인’(<라샤>)과 동사 ‘망하다’(<아바드>)의 뿌리가 함께 나오는 112편 10절⁸¹⁾(“악인은 이를 보고 한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하리니 ‘악인의 소욕은 멸망하리로다’[<타아와트 르샤임 토배드>]”)과 68편2[3]절(“연기가 물려감 같이 저희를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밀이 녹음 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요브 두 르샤임 밍프내 엘로힘>]”)과 9편5[6]절⁸²⁾(“열방을 책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입바드타 라샤>] 저희 이름을 영영히 도말하셨나이다”)은 6절 후반절 전체의 관련 구절로 제시할 수 있다⁸³⁾.

80) Hossfeld/Zenger, 49쪽.

81) JB 관주란과 NJB 관주란.

82) RSV 관주란과 NAS 관주란에서는 9편5[6]절뿐만 아니라 6[7]절과 11편6절까지 ‘악인’(the wicked)에 대한 관련 구절로 제시한다.

83) <아바드> 동사는 또한 시편 9편3[4]절(“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의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나이다[<요브두>]”)에서도 쓰이는데, 이 경우 주어는 ‘내 원수들’이다. NRSV 관주란에서 9편3[4]-6[7]절을 시편 1편6절 후반절의 관련 구절로 들고 있는 것은, 결국 1편의 ‘악인들’은 악인의 ‘원수들’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을 말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임승필 역, 31쪽에서는 시편 112편10절 말고도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가운데서 하나를 택할 것을 말하는 예레미야 21장8절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에 대해 말하는 마태복음 7장13-14절도 시편 1편6절 후반절의 관련구절로 들고 있다. JB 관주란에서는 예레미야 21장8절과 마태복음 7장13-14절뿐만 아니라, 복과 저주 가운데서 야훼 하나님께 순종하여 생명과 복을 얻도록 결단할 것을 촉구하는 신명기 30장15-20절과 ‘악인의 길’[<오라흐 찻디킴>]과 ‘악인의 길’[<데레크 르샤임>]을 대비시켜 말하는 잠언 4장18-19절과 11절30절(“악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을 시편 1편 전체의 관련 구절로 제시한다. 이러한 관주는 JB가 시편 1편에 붙인 소제목에서 드러나듯이, 시편 1편의 주제를 ‘두 길’(The two paths)로 이해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그렇지만, 시편 1편의 초점은 두 길에 있다기보다는 야훼의 <토라>를 중심으로 생활하는 사람의 복된 삶에 있으므로(김중은, “시편 1편 공부: 행복한 삶의 지혜를 위하여”, 『교회와 신학』 제32호[1998년 봄호], 88-100쪽 참고), 이는 문제가 있다. NJB에서는 이 가운데서 잠언 11절30절만 뺐다.

NIV 관주란에서는 시편 1편6절 후반절의 관련 구절로서 시편 9편6[7]절을 들기에 앞서 우선 레위기 26장38절(“너희가 열방 중에서 망하리니[<위아바드렘>] 너희 대적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의 관주란을 보라고 지시한다. 거기를 보면, 욥기 4장9절(“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요배두>] 그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36장12절(“만일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시편 1편6절, 이사야 1장28절(“그러나 폐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폐

(2) ‘악인의 길’로 번역된 히브리어 표현 <테레크 르샤임>은 시편 146편9절(“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객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테레크 르샤임>]은 굽게 하시는데도다”)과 잠언 4장19절(“‘악인의 길’[<테레크 르샤임>]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과 12장26절(“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테레크 르샤임>, 직역하면 ‘악인들의 길’]은 자기를 미혹하게 하느니라”)에 나오며, 이와 비슷한 표현은 잠언 15장9절(“‘악인의 길’[<테레크 라샤아>]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며 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과 잠언 4장14절(“사특한 자의 첩경’[<오라흐 르샤임>]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테레크 라임>]로 다니지 말라”)에 들어 있다.

이리하여 이 다섯 구절은 시편 1편6절의 ‘악인의 길’에 관련되는 구절로 열거할 수 있다.

3. 「관주 성경전서 개역 한글판」 시편 1편 관주의 성격과 문제점

3.1. 「관주 성경전서 개역 한글판」 시편 1편 관주의 성격과 유용성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시편 1편의 경우에 「관주 성경전서 개역 한글판」의 관주 분량이 상당히 많아서, 그만큼 그 내용이 자세하다는 점이다⁸⁴⁾. 그리하여 어떤 경

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예레미야 16장4절(“그들이 독한 병으로 죽고 슬퍼함을 입지 못하며 매장함을 얻지 못하여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 짐승의 밥이 되리라”), 44장27절(“보라 내가 경성하여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이 관련 구절로 열거되어 있다. 이 여러 구절 가운데 시편 1편6절에서 쓰는 히브리 동사 <아바드>가 나오는 것은 욥기 4장9절 뿐이고 나머지 구절에서는 이와 비슷한 뜻의 다른 표현이 쓰이고 있다.

한편, 「해설관주 성경전서 독일성서공회판」에서는 시편 1편6절 전체와 관련되는 구절로 145편20절(“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시리로다”)를 들고 있는데, 두 구절에 공통된 용어는 <아도나이>(‘야훼’)와 <르샤임>(‘악인들’)의 두 낱말뿐이지만, 내용상으로는 관련시킬 수 있을 것이다

84) 앞의 주7에서 인용한 관주 번역본 성경 가운데서는 NIV 관주 성경만이 시편 1편 본문의 22 군데에 관주 표시를 하고 63개의 관련구절을 제시하고 있어서, 17 군데에 관주 표시를 하고

우에는 주석서에서조차 다루지 않는 관련 구절을 제시하고 있어서, 본문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을 주기도 한다.

관주 표시를 한 부분과 관주란에서 제시한 구절들 사이의 관련성은 여러 가지이다. 이를 우선 히브리어 표현과 그 한글 번역과 문맥에 비추어 보면 다음 세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1) 같은 히브리어 표현이 한글 표현으로 똑같이 또는 비슷하게 번역되어 비슷한 문맥에서 쓰인 경우로는 ‘악인의 꾀’(1절), ‘오만한 자’(1절), ‘앓지 아니하고’(1절),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2절), ‘일사귀가 마르지 아니함’(3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3절), ‘의인의 길’(6절),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6절)의 관주를 들 수 있다.

(2) 비슷한 뜻의 히브리어 표현이 같은 한글 표현으로 번역되어 비슷한 문맥에서 쓰인 경우로는 ‘좃지 아니하며’(1절), ‘여호와와 율법을 즐거워하여’(2절),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좃아 과실을 맺으며’(3절)의 관주를 들 수 있다.

(3) 비슷한 뜻의 히브리어 표현이 비슷한 한글 표현으로 번역되어 비슷한 문맥에서 쓰인 경우로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4절), ‘견디지 못하며’(5절), ‘죄인의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5절)의 관주를 들 수 있다.

(4) 같은 히브리어 표현이 전혀 다르거나 정반대되는 문맥에서 쓰인 경우로는 ‘자리’(1절)의 관주가 있다.

이런 식으로 「관주 성경전서 개역 한글판」 시편 1편의 관주는 본문에 나오는 특정의 표현이나 개념이 구약 성경의 어느 부분과 어떻게 관계되어 어떤 언어적이고 사상적인 배경에서 이해해야 할지를 알아볼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한다. 특히 율기와 잠언의 구절들이 관련 구절로 많이 나오는 것에서 시1편이 지혜 전통에 깊게 뿌리박고 있다는 점이 잘 드러난다⁸⁵⁾.

46개의 관련 구절을 열거한 「관주 성경전서 개역 한글판」보다 관주의 분량이 더 많다. NAS 관주 성경에서는 15 군데에 38개의 관련 구절, NKJV 관주 성경에서는 8 군데에 22개의 관련 구절, NAB 관주 성경에서는 7 군데에 13개의 관련 구절, KJV1 관주성경에서는 7 군데에 12개의 관련 구절, KJV2 관주 성경과 LB에서는 3 군데에 8개의 관련 구절을 제시한다. RSV, NRSV, JB, NJB, Vulgata, 임승필 역, ZB, EÜ은 절별 관주 체계를 쓰고 있는데, 각각 시편1편 전체에 21개, 22개, 28개, 12개, 17개, 14개, 10개, 10개의 관련 구절을 들고 있다.

85) 일반 관주, 비교 관주, ‘보라’ 관주의 구별 없이 시편 1편과 관련하여 제시된 46구절의 책별 분포를 살펴 보면, 시편에서 16구절, 잠언에서 8구절, 율기와 에스겔에서 각각 3구절, 창세기와 예레미야와 나훔에서 각각 2구절, 민수기와 여호수아에서 각각 1구절, 신약 성경에서 5구절 제시되었다. 신약 성경 구절을 제외한 나머지를 문학 유형별로 보면 시편 다음으로는 잠언과 율기를 합한 지혜 문헌에 속한 구절이 11구절로 제일 많고, 예언서에 속한 구절이 10개, 율법서에 속한 구절이 3개, 역사서에 속한 구절이 1개이다. 그런데, 시편 구절 가운데서 적어도 8개(37:5,18; 112:1; 119:1,35,47,92,97), 오경 구절 가운데서 2개(창39:2,23), 예언서 구절 가운데 1개(렘 17:8)도 지혜 전통에 속하므로, 지혜 관련 구절의 수는 22 이상이나 되어, 전체 구절 수의 거의

3.2. 「관주 성경전서 개역 한글판」 시편 1편 관주의 문제점

그렇지만, 다음 몇 가지는 아쉬운 점으로 들 수 있다.

(1) 본문의 어느 부분을 문제 삼는지를 관주 표시만 보아서는 알기 힘들고, 관주란에서 제시한 관련 구절들과 관주 표시가 있는 절을 일일이 대조해 보아야 알 수 있다.

(2) 히브리어를 모르고 한글로만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관주란에 제시된 구절들과 관주로 표시한 부분을 견주어보았을 때, 왜 그런 구절들을 관련 구절로 제시했는지 그 까닭을 얼른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다. 여기에는 다시 몇 가지 경우가 있다.

첫째, 히브리어 본문에서는 같은 낱말이거나 같은 표현인데, 한글 개역판에서 다르게 번역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5절의 ‘견디지 못하며’와 6절의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가 그 대표적인 경우이다⁸⁶).

둘째, 알맞지 않은 구절을 관련 구절로 제시한 경우이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1절) 관주란에 제시된 잠언 1장10절,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2절) 관주란에 제시된 시편 119편1절, ‘시냇가에’(3절) 관주란에 제시된 시편 46편4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3절) 관주란에 제시된 이사야 3장10절과 시편 128편2절이 그런 보기이다⁸⁷).

셋째, 관주 표시의 자리가 부정확한 경우이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3절), ‘견디지 못하며’(5절),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5절)이 그 보기이다⁸⁸).

(3) 관련 구절을 보충하면 더 나아질 경우도 적지 않다. ‘악인의 꾀’(1절)에 대해서는 욥기 10장3절을, ‘얕지 아니하고’(1절)에 대해서는 시편 26편5절을, ‘여호와와 율법을 즐거워하여’(2절)에 대해서는 예레미야 6장10절을,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3절)에 대해서는 사무엘상 18장14절과 열왕기하 18장7절을,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4절)에 대해서는 시편 35편5절과 이사야 17장13절과 29장5절과 시편 83편12절을, ‘견디지 못하며’(5절)에 대해서는 시편 24편5절을, ‘의인의 길’(6절)에 대해서는 잠언 2장20절과 4장18절을,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6절)에 대해서는 시편 139편1,23-24절과 예레미야 12장3절을 보충할 만하다⁸⁹).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86) 위 2.5.2와 2.6.3을 보라.

87) 위 2.1.4, 2.2.3, 2.3.2, 2.3.5를 보라.

88) 위 2.3.3, 2.5.2, 2.5.3을 보라.

(4) 새로 관주 표시할 필요가 있는 곳도 있다. 1-2절 전체, ‘복 있는 자는’(1절), 2절 전체, ‘여호와와 의 율법’(2절), ‘주야로’(2절), ‘묵상하는’(2절), ‘심판을’(5절), ‘의인의 회중에’(5절),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6절), ‘악인의 길’(6절)이 그러하다⁹⁰).

(5) 제시된 관련 구절을 줄여도 되는 경우도 있다. ‘오만한 자’(1절)의 관주에 열거된 잠언 19장29절과 21장24절과 29장8절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3절)의 관주에 제시된 욥기 29장19절이 그런 보기이다⁹¹).

(6) 비교 관주와 보기 관주와 일반 관주를 구별하는 까닭이 언제나 뚜렷이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⁹²).

1절의 ‘자리’에 대해 시편 107편32절을, 3절의 ‘앞사귀가 마르지 아니함’에 대해 이사야 34장4절은 각각 관주 표시를 한 시편 본문 부분과 대조적인 뜻을 지니므로 비교 관주로 표시한 것은 타당하다⁹³).

그렇지만, 3절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고’의 일반 관주에 나오는 에스겔 19장10절과 비교 관주에 나오는 민수기 24장6절은 그렇게 구별할 실익이 별로 없다⁹⁴. 또 히브리어 문장상으로 같은 낱말은 거의 나오지 않으나 내용이 비슷한 경우로서, 5절의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의 관련 구절로 든 에스겔 13장9절은 비교 관주로 하고, 1절의 ‘좃지 아니하고’의 관련 구절로 든 잠언 4장14-15절은 일반 관주로 함으로써, 비교 관주와 일반 관주의 구별이 엄격하지 않음을 보여 준다⁹⁵. 더 나아가서, 신약 관련 구절을 2절의 ‘여호와와 의 율법을 즐거워하여’와 5절의 ‘견디지 못하며’ 관주란에서는 일반 관주로 제시한 반면, 6절의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관주란에서는 비교 관주로 제시한 것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게 해 준다⁹⁶.

시편 1편의 유일한 ‘보라’ 관주로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4절)의 관련 구절로 제시된 욥기 21장18절은 일반 관주로 표시해도 별 문제가 없다⁹⁷.

89) 위 2.1.2, 2.1.7, 2.2.2, 2.3.5, 2.4.2, 2.5.2, 2.6.2, 2.6.3을 보라.

90) 2.1.8의 (2), 2.1.8의 (1), 2.2.4의 (1),(2),(3), 2.5.4의 (1),(2), 2.6.4의 (1), (2)를 보라

91) 위 2.1.5와 2.3.3을 보라.

92) 시편 1편에서는 아직 ‘인용 관주’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평가는 나중에 미룰 수 밖에 없다. NIV 관주란에서는 구약 본문이 신약에 인용된 경우에는 그 관련구절 뒤 괄호 안에 별표(*)를 붙이고, 완전히 같거나 거의 같은 구절들은 pp.로, 비슷한 것들은 Ref.로 표시한다.

93) 위 2.1.7과 2.3.4를 보라.

94) 위 2.3.3을 보라.

95) 위 2.5.3을 보라.

96) 위 2.2.2, 2.5.2, 2.6.3을 보라.

97) 위 2.4.2를 보라.

4. 새로운 관주 표기를 위한 원칙 제안과 개역개정판 시편 1편의 관주 시안

4.1. 새로운 관주 표기를 위한 원칙 제안

앞에서 자세히 검토해본 뒤에 간추린 바를 중심으로 한글 성경에 관주를 붙일 때 참고할 만한 원칙으로 다음 몇 가지를 제안한다.

(1) 위 3.2의 (1)과 (2)에서 지적한 점을 생각할 때, 관주 대상에 따라 적어도 다음 세 가지 방식으로 관주 표시를 한다.

첫째, 관주의 대상이 낱말 하나인 경우에는 이전처럼 그 낱말의 첫 글자 앞 윗쪽에 표시한다⁹⁸⁾. 아래 4.2.1에서 보듯이, 1절의 ‘⁹자리’, 2절의 ‘¹⁰주야로’ ‘¹¹묵상하는도다’, 3절의 ‘¹²시냇가에’, 5절의 ‘¹³심판을’이 그런 경우이다.

둘째, 관주의 대상이 낱말 둘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첫째 낱말 마지막 글자 다음 윗쪽에 표시한다⁹⁹⁾. 아래 4.2.1에서 보듯이, 1절의 ‘복¹⁴ 있는’, ‘악인들의¹⁵ 꾀’, ‘따르지¹⁶ 아니하며’, ‘오만한¹⁷ 자들의’, ‘않지¹⁸ 아니하고’, 2절의 ‘여호와와의¹⁹ 율법’, 5절의 ‘견디지²⁰ 못하며’, ‘의인들의²¹ 모임’, 6절의 ‘의인들의²² 길’, ‘여호와께서²³ 인정하시나’, ‘악인들의²⁴ 길’이 그런 경우이다.

셋째, 관주의 대상이 세 낱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첫 낱말의 첫 글자와 마지막 낱말의 마지막 글자에 관주 표시를 한다¹⁰⁰⁾. 아래 4.2.1에서 보듯이, 1-2절 전체를 표시하는 ¹, 1절 전체를 표시하는 ², 1절의 ‘³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⁴’, 2절의 ‘⁵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⁶’, ‘⁷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⁸’, 3절의 ‘⁹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¹⁰’, ‘¹¹있사귀가 따르지 아니함¹²’, ‘¹³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¹⁴’, 4절의 ‘¹⁵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¹⁶’, 5절의 ‘¹⁷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¹⁸’, 6절의 ‘¹⁹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²⁰’가 그런 경우이다.

98) NIV 관주란에서는 낱말의 마지막 자음 뒤쪽 위에 관주 표시 자모를 붙인다.

99) 이는 앞의 주6에서 인용한 *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의 소 마소라가 두 낱말에 해당될 경우에 그 사이 윗쪽에 작은 동그라미를 쳐서 표시하는 것을 원용하되 인쇄상으로 그 동그라미가 뒷 낱말의 관주 표시로 오해되지 않도록 앞 낱말의 마지막 글자 바로 뒤 윗쪽에 관주 기호를 적기로 한 것이다.

100) 이는 마찬가지로 *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에서 비평 사항이 적용되는 본문 부분이 두 낱말 이상으로 이루어질 때 쓰는 방식을 원용한 것이다.

(2) 관주 분량이 너무 늘어나지 않게 한다.

첫째, 이를 위해서는 「관주해설 성경전서 독일성서공회판」을 비롯하여 여러 외국어 관주 번역본 성경에서 취하는 방식을 따라, 관련 구절이 많은 경우에는 그 주된 관련 구절의 관주란을 보도록 지시하는 방식을 쓰기로 한다. 그러니까, 아주 고정된 표현 형식에 대한 관련 구절들은 신구약 성경 가운데 한 곳에만 자세히 열거하고, 나머지 곳에서는 이 곳을 보도록 지시할 수 있다¹⁰¹). 아래 4.2.1에서 보듯이 1절의 ‘복 있는’의 관주란에 ‘시2:12관’과 ‘신33:29관’으로, ‘악인의 꾀’의 관주란에 ‘욥10:3관’, 3절의 ‘주야로’의 관주란에 ‘시42:3관’과 ‘출13:21관’으로, ‘묵상하는도다’의 관주란에 ‘시119:15관’으로, 또 6절의 ‘여호와께서 아시나’의 관주란에 ‘렘12:5관’으로 적는 것이 그 보기가 된다.

둘째, 너무 넓은 범주에서 비슷한 것은 관련 구절로 제시하지 않기로 한다. 위 3.2의 (5)에서 언급한 경우와 각주 15, 19, 21, 28, 41, 68, 69, 72, 77에서 언급한 경우가 그런 보기이다. 이런 경우는 주석에서 다루면 될 것이다.

셋째, 너무 일반적으로 쓰이는 낱말이나 개념을 관주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이를테면, 3절의 나무 비유, ‘과실을 맺으며’, ‘있사귀’ 같은 것이다¹⁰²).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주석에서 다루면 될 것이다.

(3) 관주란에서 관련 구절들을 열거할 때 그 순서는 본문에서 관주 표시를 한 부분과 표현상으로는 내용상으로 가장 가까운 것부터 그 관련성의 정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¹⁰³). 이렇게 하면, 비교 관주와 ‘보라’ 관주는 없애도 괜찮을 것이다.

(4) 관주 표시 기호는 성경의 장별로 새로 그부터 시작하여 이중모음 3까지 쓰기로 한다¹⁰⁴).

4.2. 개역개정판 시편 1편의 관주 시안과 이에 뒤따르는 몇 가지 작업

101) 앞의 주17을 보라.

102) 각각 앞의 주58, 60-61, 62를 보라.

103) 앞의 주7에서 인용한 *NRSV Harper Study Bible*처럼. NIV 관주란에서는 성경 책 순서대로 하되, 같은 장에 있는 관련 구절은 맨 앞에 둔다(*The NIV Study Bible*, xvi쪽). *Eyre & Spottiswoode Study Bible. The Holy Bible containing the Old and New Testaments. Revised Standard Version*(ix쪽)에서는 관련 구절을 연대 순서로 배열했다고 한다.

104) 위의 주10을 참고하라.

4.2.1. 개역개정판 시편 1편의 관주 시안

1 ㄱ^ㄴ복^ㄷ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ㄹ 궤를 따르지^ㅁ 아니하며 ㅂ^ㅅ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ㅆ 오만한^ㅇ 자들의 ㅈ^ㅊ자리에 앉지^ㅋ 아니하고^ㄴ

2 오직 ㄷ^ㄹ여호와^ㅅ의 ㅈ^ㅊ울법을 즐거워하여^ㅋ 그의 ㄱ^ㄴ울법을 ㅍ^ㅇ주야로 ㅎ¹⁾묵상하는도다 ㅋ^ㄱ

3 그는 ㄱ^ㄴ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ㄷ 그 ㄱ^ㄴ앞사귀가 마르지 아니함^ㄷ 같으니 ㄱ^ㄴ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ㄷ

4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ㄷ이여 오직 ㄴ^ㄷ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ㄴ

5 그러므로 악인들은 ㅍ^ㅇ심판을 견디지^ㅈ 못하며 ㅈ^ㅊ죄인들이 의인들의^ㅇ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ㅈ

6 무릇 의인들의^ㅇ 길은 여호와^ㅅ께서 ㅈ^ㅊ인정하시나 ㅈ^ㅊ악인들의^ㅇ 길은 망하리로다^ㅈ

1) ㅎ,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ㄱ-ㄱ 시119:1; 눅11:28

ㄴ-ㄴ 신6:7

ㄷ 시2:12관; 신33:29관

ㄹ 룩10:3관

ㅁ 잠4:14-15

ㅂ-ㅂ 잠1:15

ㅅ 잠3:34; 1:22; 사28:14

ㅇ 시107:32

ㅈ 시26:4,5; 렘15:17

ㅊ-ㅊ 시112:1; 119:35,47,92; 롬7:22; 렘6:10

ㅋ-ㅋ 수1:8; 시119:97

ㅌ 시19:7; 출13:9

ㅍ 사60:11; 시32:4; 42:3관; 55:10; 출13:21관

ㅎ 시77:12; 143:5; 119:15관

ㅈ-ㅈ 렘17:8; 겔19:10; 민24:6

ㅊ 사32:2

ㅋ-ㅋ 겔47:12; 사34:4

ㅋ-ㅋ 창39:2,23; 수1:7-8; 삼상18:14; 왕하18:7; 시128:2

ㄴ-ㄴ 시35:5; 룩21:18; 사17:13; 29:5; 시83:13

고 시9:7,8,16; 58:11; 전3:17

ㄱ 시24:3; 나1:6; 시76:7; 5:5; 눅21:36; 엡6:13

ㄴ-ㄷ 겔13:9

르 시89:5,7; 111:1; 149:1

이 시37:5; 잠4:18; 2:20

미 시31:7; 144:3; 37:18; 나1:7; 렘12:3관; 시139:1,23; 요10:14; 딤후2:19

미-뉘 시112:10; 68:2; 9:5

네 시146:9; 잠4:19; 12:26; 15:9; 4:14

4.2.2. 시편 1편 관주에서 관주란을 보도록 지시한 관련 구절의 관주 시안

위 시안에서 관련 구절의 관주란을 보라고 지시한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아래에서는 그 관련 구절의 관주를 제시해 보기로 한다. 관주 표시 기호는 이 구절들이 속한 단락의 크기에 따라 달라질 것이므로, 여기서는 우선 그냥 ○ 또는 ○-○을 쓰기로 한다.

출애굽기 13장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 민9:21; 대상9:33; 느1:6; 시1:2관

신명기 33장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 왕상10:8; 사30:18관; 시1:1관; 잠3:13관; 전10:17¹⁰⁵⁾

욥기 10장3절: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확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피에 빛을 비

105) 이사야 30장18절 관주란과 잠언 3장13절 관주란에 어떤 구절들을 제시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앞의 주27을 보라.

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 21:16; 22:18; 시1:1

시편 2편12절: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 34:8; 84:12; 146:5; 40:5; 신33:29관

시편 42편3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은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 렘9:1; 14:17; 애2:18

시편 119편15절: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 119:23, 27, 48, 78, 148; 145:5; 1:2관

예레미야 12장3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한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 15:15; 17:16; 18:23; 시1:6관

4.2.3. 개역개정판의 본문과 관련된 문제점

그런데, 개역개정판의 본문이 달라짐으로써 위에서 제시한 시안을 따라 개역개정판에서 관주 붙은 부분과 그에 대한 관련 구절들을 낱낱이 찾아 견주어 보면 다음과 같이 달라진 점이나 문제되는 점이 발견된다.

(1) 위 관주 표시 기호 ^, 곧 1절의 ‘오만한 자들’(<래침>)의 관련 구절로 제시

한 이사야 28장14절 개역 한글판의 ‘경만한 자’(<안쇄 라촌>)를 개역개정판에서는 ‘오만한 자’로 고쳤기 때문에, 한글 번역으로는 가장 가까운 관련 구절이 되었다. 잠언1장22절과 3장34절의 <래침>은 개역 한글판 그대로 각각 ‘거만한 자들’과 ‘거만한 자’로 해 두었다.

(2) 위 관주 표시 기호 ^ㄱ, 곧 2절의 ‘울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의 관련 구절로 제시된 두 구절 가운데 시편 119편97절을 찾아보면, 개역 한글판에서 ‘묵상하나이다’로 번역했던 것을 개역개정판에서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로 고쳐 놓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리하여 시편 1편2절의 ‘묵상하다’와 119편97절의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가 상응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문맥에서 알아차리는 것은 독자의 할 일로 넘어간다. 한 가지 도움이 되는 것은 개역개정판에서 시편 1편2절의 ‘묵상하는’에 ‘히,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는 난외주를 붙여 놓았다는 점이다. 이 난외주를 지나쳐보지 않는 독자는 이 구절과 119편97절의 관련성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3) 같은 문제가 위 관주 표시 기호 ^ㅎ, 곧 2절의 ‘묵상하는도다’과 관련되는 것으로 제시된 구절들에게도 생긴다. 곧 개역개정판으로 시편 77편12절과 143편5절과 119편15절을 찾아보면, 개역 한글판에서 ‘묵상하나이다’로 번역했던 것을 개역개정판에서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로 고쳐 놓은 것을 알 수 있다.

(4) 2절의 ‘^ㄷ주야로’에 대한 관련 구절로 제시된 출애굽기 13장21절에서 개역 한글판의 ‘주야로’가 개역개정판에서는 ‘낮이나 밤이나’로 달라졌다. 이는 그리 큰 문제는 아니나, 이것을 다른 관련 구절(사60:11; 시32:4; 42:3; 55:10)에 나오는 ‘주야로’와는 다른 표현으로 오해할 소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¹⁰⁶⁾.

다른 한편으로 개역개정판의 본문이 달라지지 않음으로써, 개역 한글판 관주에서 번역상으로 문제가 되었던 바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도 있다.

3절의 ‘^ㄱ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ㄱ’의 관련 구절로 제시된 열왕기하 18장7절이 개역개정판에서도 개역 한글판과 마찬가지로 히브리어 동사 <사칼>

106) 한편 시안으로 제시한 관주의 분량을 보면, 시편 1편 본문의 27군데에 관주 표시를 하고, 그에 대한 관련 구절로서 86개를 제시하였다. 「관주 성경전서 개역 한글판」의 경우(앞의 주 85를 보라)와 비교해 보면, 관주 표시는 10군데, 관련 구절의 수는 40개 늘어났다. 관련 구절의 책별 분포도를 알아보면, 시편에서 41개, 잠언에서 10개, 이사야에서 6개, 예레미야에서 5개, 창세기와 출애굽기와 신명기와 여호수아와 욥기와 에스겔과 나훔에서 각각 2개, 민수기와 사무엘상과 열왕기하와 전도서에서 각각 1개, 신약 성경에서 6개 찾아 제시하였다. 신약 성경과 시편을 뺀 나머지 구절들은 또한 지혜서에서 13개, 예언서에서 15개, 율법서에서 7개, 역사서에서 4개 제시한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시편과 예언서나 율법서나 역사서 가운데서 지혜 전통에 속한 경우를 적어도 13구절(시2:12; 19:7; 37:5; 112:1; 119:1,15,35,47,92,97; 렘 17:8; 창39:2,23) 정도 찾아볼 수 있어서, 지혜 관련 구절이 26개 이상이 되지만, 「관주 성경전서 개역 한글판」의 경우보다는 그 비중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히필형을 ‘지혜롭게 행하다’로 번역해두어서, 히브리어를 모르는 독자들은 이 구절이 왜 ‘형통하다’는 의미를 담은 구절들과 함께 들어 있는지 의아해 할 여지가 있다. 이 동사가 ‘지혜롭게 행하다’는 뜻을 지니는 경우도 있지만, 적어도 열왕기하 18장7절에서는 ‘형통하다’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낫다¹⁰⁷⁾.

또, 5절의 ‘견디지^나 못하며’와 그 관련 구절에 나오는 공통된 히브리 동사가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어 있어서 얼른 그 관련성을 알아차리기 힘든 점은 개역개정판에도 그대로 남아 있다¹⁰⁸⁾.

그뿐만 아니라, 6절의 ‘악인들의^게 길’의 관련 구절로 제시된 잠언 15장9절의 경우에도 개역 한글판에서 히브리 낱말 <테레크>('길')를 ‘소행’으로 번역한 것을 개역개정판에서 그대로 두었다. 그리하여, 성서 고전어를 모르는 독자는 ‘길’이란 낱말이 들어 있는 나머지 구절과 이 구절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생각해 보게 될 것이다.

5. 나가는 말

지금까지 「관주 성경전서 개역 한글판」 시편 1편 관주를 여러 가지 면에서 자세히 검토해 보고 그 결과를 새로운 관주 표기를 위한 몇 가지 원칙에 따라 개역개정판 시편 1편 본문에 관주를 붙여 보고, 다시 그것을 검토해 보았다.

이런 식으로 관주를 개정하자면, 그야말로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¹⁰⁹⁾. 그런 만큼 관주 개정 작업은 장기적인 성격을 띠 수밖에 없다¹¹⁰⁾. 이제 그 머나먼 길의 첫 발걸음을 내딛은 마음으로 이 연구를 마무리한다.

107) 공동 번역, 표준새번역, NIV, NRSV, LB, ZB 등. 위 2.3.5를 보라.

108) 위 2.5.2 끝부분을 보라.

109) 앞의 주1에서 인용한 전무용의 글, 89쪽 참고.

110) 같은 글, 99-100쪽 참고.